

# 校服自律化에 따른 女高生の 意識調査 研究

— 心理的인 葛藤과 自我概念을 中心으로 —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姜 承 子

指導教授 姜 昌 赫

1986年 月 日

姜承子の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 審

高明奎 

副 審

姜昌赫 

副 審

이완정 

1986年 月 日

# 目 次

I. 緒 論 .....	1
A. 研究의 必要性 .....	1
B. 研究의 目的 .....	2
C. 研究의 制限點 .....	3
II. 理論的 背景 .....	4
A. 自我概念에 관한 諸 理論 .....	4
B. 自我概念과 衣服行動 .....	11
C. 教育에 있어서의 自律化의 重要性 .....	19
III. 研究의 方法 및 節次 .....	26
A. 研究의 道具 및 調查對象 .....	26
B. 道具製作 .....	26
C. 資料處理 .....	27
IV. 研究의 結果 및 解釋 .....	28
A. 校服自律化에 대한 基礎調查 .....	28
B.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인 葛藤 .....	36
C.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 .....	46
V. 要約 및 結論 .....	56
參考文獻 .....	58
附 錄 .....	63
英文抄錄 .....	67

## 表 目 次

(表 1) 調査對象部門 .....	26
(表 2) 校服自律化에 대한 贊反調査 .....	28
(表 3) 衣服선택시 自律性 尊重에 對한 調査 .....	29
(表 4) 유명메이커 選好度 調査 .....	30
(表 5) 自由服着用과 行動의 自由에 對한 調査 .....	30
(表 6) 自由服의  간편성과  활동성에 對한 調査 .....	31
(表 7) 自由服 구입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에 對한 調査 .....	32
(表 8) 自由服의 純粹성에 對한 調査 .....	33
(表 9) 自由服과 個性있는 옷차림에 對한 調査 .....	33
(表 10) 自由服의  색상制限에 對한 調査 .....	34
(表 11) 學校마다의 統一된 服裝에 對한 調査 .....	35
(表 12) 校服自律化에 대한 基礎調査에서 系列別(人文系, 實業系)間的 比較分析 .....	36
(表 13) 校服自律化에 대한 基礎調査에서 學生構成別(女高, 男女共學)間的 比較分析 ..	36
(表 14) 校服自律化에 대한 基礎調査에서 地域別(市地域, 邑面地域)間的 比較分析 .....	37
(表 15) 부모님의 干涉으로 인한 葛藤 調査 .....	37
(表 16) 선생님의 規制로 인한 葛藤 調査 .....	38
(表 17) 自身の 옷차림에 대한 葛藤 調査 .....	39
(表 18) 옷차림의 比較로 인한 열등감 調査 .....	39
(表 19) 옷을 멋있게 입고싶은 慾求 調査 .....	40
(表 20) 부모님이 선택해준 옷에 對한 葛藤 調査 .....	41
(表 21) 모임에서의 옷차림으로 인한 葛藤 調査 .....	42
(表 22) 衣服에 따른 心的狀態 調査 .....	42
(表 23) 活動目的과 衣服行動에 對한 調査 .....	42
(表 24) 價格과 衣服行動 調査 .....	44
(表 25)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인 葛藤에 對한 調査에서 系列別 (人文系, 實業系)間的 比較分析 .....	44

(表26)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에 대한 調査에서 學生構成別 (女高, 男女共學)間의 比較分析 .....	45
(表27)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에 대한 調査에서 地域別 (市地域, 邑面地域)間의 比較分析 .....	45
(表28) 個性表現과 衣服行動 調査 .....	46
(表29) 他人의 評價와 衣服行動 調査 .....	47
(表30) 流行과 衣服行動 調査 .....	48
(表31) 滿足感과 衣服行動 調査 .....	49
(表32) 異性에 대한 好感과 衣服行動 調査 .....	49
(表33) 交友관계와 衣服行動 調査 .....	50
(表34) 學習活動과 衣服行動 調査 .....	51
(表35) 身體像과 衣服行動 調査 .....	52
(表36) 예의성과 衣服行動 調査 .....	52
(表37) 부모님의 評價와 衣服行動 調査 .....	53
(表38)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 대한 調査에서 系列別 .....	54
(人文系, 實業系)間의 比較分析 .....	54
(表39)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 대한 調査에서 學生構成別 (女高, 男女共學)間의 比較分析 .....	54
(表40)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 대한 調査에서 地域別 (市地域, 邑面地域)間의 比較分析 .....	55

## 圖 目 次

〈圖-1〉 Combs 와 Snygg 의 自我構造 .....	7
〈圖-2〉 自我概念의 構造 .....	8

# I. 緒 論

## A. 研究의 必要性

衣服은 人間의 미적 表現欲求와 身體保護의 欲求를 成就시키기 위하여 藝術的으로 構成하여 人間의 가장 밀접한 피부위에 조화시키는 것으로 人間 個個人的 獨特한 方法으로 環境에 적응하여 나가는 自己表現이라 간주할 수 있다.<sup>1)</sup>

一般的으로 人間의 一生中 衣服에 가장 興味를 갖는 時期는 靑少年期로서 이들은 目的達成과 關心獲得의 手段으로서 衣服이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sup>2)</sup>

Rosencranz 는 20歲 미만의 女性들은 다른 어느 연령층 보다도 衣服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特히 女大生들에게 있어 衣服은 情緒的 恐怖로 부터의 해방, 異性에 대한 매력의 手段, 그리고 주변으로 부터 認定받기 위한 手段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流行에 상당히 민감하다.<sup>3)</sup>

Garrison 은 靑年期에 있어 衣服은 安定感의 象徴, 自身の 表現, 동료들과의 同一視의 手段으로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sup>4)</sup>고 하였다.

Hurlock 는 靑年期는 外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衣服이나 장식품에 많은 時間과 金錢을 消費한다<sup>5)</sup>고 하였다.

따라서 日常生活속에서 衣服이 지니는 意味란 단순히 身體保護의 意味를 넘어 社會的 心理的인 面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衣服은 人間生活에서 不可分의 關係를 가진 것으로서, 外貌의 한 요소가 되어 대부분의 社會的 만남에서는 주요한 부분이 된다. 衣服은 주로 社會的 目的에 기여하면서,<sup>6)</sup> 社會 뿐 아니라 自身の 性格, 自我, 態度 등을 反映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다른 연령층 보다도, 特히 靑年期에는 男女 다 같이, 衣服과 外樣이 重要한데, 自我意識의 高揚期라고

1) 류송옥, 「복식 의상학」(서울: 수학사, 1975), p. 25.

2) Kefgen, Mary and Phillis, Tochie-Spea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cMillan Publishing Co., 1976), p. 50.

3) Rosencranz, Mary L., A Study of Women's Interest in Clothing(Journal of Home Economics,1949), p. 41.

4) Garrison, Karl C., Psychology of Adolescence,(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5), p. 105.

5) Hurlock, E. B.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New Delhi, McGraw-Publishing Co., 1975), pp. 205~211.

6)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New York: Rinehart and Winston, Inc., 2, 1966).

할 수 있는 青年中期<sup>7)</sup>의 女高生 시절은, 自我概念의 한 側面인 自己尊重感을 높이고, 身體的, 心理的, 社會的 變化에 대한 여러 환경에서 適應上의 問題를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운 時期이다. 特히, 이러한 自我意識의 發達은, 不適應의 原因이<sup>8)</sup> 되기도 한다. 한편, 人間의 行動이나 態度가, 個人的 心理的, 社會的 여러 상황과 관련을 갖고 이루어진다면, 衣服의 디자인이나 流行에 대한 興味性이나, 他人 特히 同僚集團 標準에 의해서 衣服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 자기 신뢰감이나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는 同調性,<sup>9)</sup> 衣服에 따라 感情이 좌우되는 依存的 태도, 그리고 자신의 美的 外樣에 관심이 있고 이를 중시하는 審美的 衣服行動이나 態度도 여러 因子, 特히 社會的 要因과 個人的 欲求, 態度, 價值觀, 自己概念 등의 心理的 要因과 관련을 갖고 이루어 진다<sup>10)</sup>고 하겠다.

女高生の 경우 1983년 부터 시행된 校服自律化로 因하여, 女高生들의 衣裳이 그들의 生活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고, 衣服選擇이나 着用, 利用등의 衣服行動 주변에는 여러 社會, 心理的인 요인이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社會的·心理的 要因과 關係를 갖고 이루어지는 衣服行動이 社會的適應, 個人的適應 등의 適應性과 自己尊重水準 그리고 社會參與도와 어떤 關係를 갖고 이루어지는가를 研究하는 것은 靑少年期 女高生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하고 意義있는 일이다.



## B. 研究의 目的

衣服의 着用, 選擇, 廢棄 등의 衣服行動에는 많은 因子가 作用하고 있어 文化的 要因, 社會的 要因 등과 함께 個人的 欲求, 態度, 價值觀, 自己概念 등도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 時期의 靑少年들은 特異한 과도기에 처하여 여러가지 急激한 身體的, 生理的 變化를 겪게되며 이에 따라 全體性을 體驗하기 위하여 오랜 兒童期 동안의 그 自身の 모습과 예기된 장래에 약속된 自身の 모습 사이에 漸進的인 連續性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 時期의 自己探索은 全 생애에 대한 認識을 갖고 장래에 대한 전망적인 觀點에서 여러

7) 閔榮順, 「發達心理學」(서울: 教育出版社, 299, 1979).

8) 上揭書, p. 275.

9)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49, 1976), pp. 176~178.

10) 藤原康晴, “女子大生の 被服の 關心度と 自尊感情との關係”, (日本: 家庭學雜誌, Vol. 33, No. 10, 548, 1982), p. 87.

가지 역할 및 決定에 參與함으로써 이루어진다.<sup>11)</sup>

이때 衣服은 視覺的 이미지라는 表現手段으로 個人的 性格, 役割, 態度, 雰圍氣 등의 社會心理學的 諸側面을 반영 傳達하는, 外貌에서의 변형된 自我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衣服行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自我正體感은 중요한 因子의 하나로 衣服에 대한 態도와 關心度에도 自我正體感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어떤 對象에 대한 態度나 關心度는 人間의 行動을 說明하고, 豫測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態度나 關心度の 測定은 社會心理學에서도 重要한 개념으로 使用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의 目的은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인 葛藤과 自我概念을 中心으로 女高生의 意識을 調査해 보는 데 있다.

## C. 研究의 制限點

### 1. 調査對象의 制限

全國에 있는 女高生들을 調査對象으로 選定하지 못하고 濟州道內에 있는 女高生들에 限해 選定했기 때문에 이 研究의 結果를 一般化시키기에는 限界가 있다.

### 2. 質問紙 應答의 타당성 限界

本 調査는 女高生들을 對象으로 調査하는데 그쳤고 그들의 應答結果에 對한 信賴度를 測定치 못했다.

---

11) Erikson, E. H. Insight and Responsibility, (N. Y: Norton, 1964), p. 91.

## II. 理論的 背景

### A. 自我概念에 관한 諸 理論

#### 1. 自我理論

自我概念은 흥미나 태도, 동기 및 포부수준 등과 함께 학습자의 情意的 特性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정의적 特性은 학습과정에서 動機的인 기능을 갖기 때문에 知的 特性 못지 않게 學業成就度에 영향을 미친다. 特히 學校사태에서의 自我概念의 역할은 學業成就를 비롯하여 教師 및 친구들과의 관계와 學校生活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自我概念이 學業成就를 비롯하여 學生들의 제반 特性들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自我概念이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Wylie<sup>12)</sup>와 Purkey<sup>13)</sup>는 國民學校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보다 긍정적인 自我概念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成就를 나타낸다고 報告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두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낮은 自我概念과 낮은 學業成就의 악순환 현상이 그 한가지 이유라는 것이다. 즉 능력이 부족한 學生들은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부정적인 自我概念이 發達되고 따라서 낮은 自我概念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學業成就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은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自我概念의 수준은 成就의 수준을 예언해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둘째, 낮은 自我概念은 學習活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호기심이나 創意力이 높은 學生들은 그렇지 않은 學生들에 비해 더 높은 自我概念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연구 結果 등이 이 事實을 입증해 주고 있다. 즉 호기심과 創意力이 높은 學生들은 더 많은 정보와 學習課題를 모색하게 될 것이며, 반면에 自我概念이 낮은 學生들은 이러한 행동이 저지 받기 때문에 낮은 學業成就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Brookover<sup>14)</sup>도 自我概念의 변화와 學業成就의 변화가 서로 相補的이라는 연구 결과를 提示하고 있으며, 國民學校 1 학년부터 중학교

12) Wylie, R. C. The Self-Concept ; A Critical Survey of Pertinent Research literature,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1), pp. 136~138.

13) Purkey, W. W.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0), p. 166.

14) Brookover, W. B., Thoman, S., & Paterson, A.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 Sociology of Education(1964), p. 37.

2학년까지의 學生을 대상으로 한 研究를 통하여 學業能力에 대한 自我概念이 學業成就의 結果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研究結果를 發表함으로써 위의 主張과 같은 結論을 맺고 있다. 한편, 이들의 主張과 일치하는 結果를 보이고 있는 國內의 研究로는 張錫敏<sup>15)</sup>, 崔在奎<sup>16)</sup>, 金豪權<sup>17)</sup> 등의 研究를 들 수 있다. 주로 國民學校 上級학년 學生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研究結果도 自我概念과 學業成就是 正的 상관이 있으며 自我概念이 높으면 學習動機 또한 높고 學習結果에 대한 成功·실패의 經驗이 누적 될수록 自我概念과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

또한 自我概念과 높은 不安水準과의 관계도 오래전 부터 研究되어 왔으며 學校 사태에서는 특히 시험불안과 自我概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Sarason & Koenig<sup>18)</sup>, Spielberger<sup>19)</sup> 등으로 代表되는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불안은 자아개념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하나의 기제(mechanism)로 작용하여 어떤 상황(특히 成就나 評價에 관련된)에 대한 個人的 反應양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개념은 개인의 身體的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 學生의 경우 특히 男學生 집단에서는 근육형의 學生들이 가장 긍정적인 身體的 自我概念을, 비만형의 學生들은 부정적인 自我概念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른형은 그 중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女學生 집단에서는 마른형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男學生 집단과 마찬가지로 비만형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身體 장애아들의 자아개념은 정상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國內研究로는 金基雄<sup>20)</sup>의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身體的 변인과 自我概念과의 관계에 관한 研究가 있다. 이 研究에서도 男學生 집단에서는 體格과 體力이, 女學生 집단에서는 신장이 自我概念과 正的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c Candless<sup>21)</sup>는 언어발달의 시작이 곧 自我概念의 시작이며 언어의 역할이 이

- 
- 15) 張錫敏, “學業成就와 自我概念의 關係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1), p. 63.
  - 16) 崔在奎, “自我概念과 學業成就間의 상관계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教育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p. 98.
  - 17) 金豪權, “自我概念 변화에 관한 擬似 縱斷的 研究”, (서울: 行動科學 研究所, 1979), pp. 103.
  - 18) Sarason, I. G., & Koenig, K. P., Relationships of test anxiety and hostility to description of Self and Par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p. 2.
  - 19) Spielberger, C. D.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Inc. D. Spielberger Ed.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66), p. 99.
  - 20) 金基雄, “身體的 變因과 自我概念과의 關係”,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p. 182.
  - 21) Me Candless, B. R. Children: Behavior and development 2nd ed.(chicago: Holt, 1967), p. 68.

러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elker & Slanwyck<sup>22)</sup>, Felker & Thomas<sup>23)</sup>도 긍정적인 自己言語(Self-language)와 自我概念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研究結果를 發表하였다. 自我概念은 또한 自己 및 타인수용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自我概念이 높은 사람은 自身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이렇게 自身에 대한 수용적인 행동을 學習했다면 그러한 행동은 다른사람에게도 일반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自我概念은 學業成就를 비롯하여 身體的 조건 및 기타 정의적인 特性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自我概念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內面化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學校에서는 보다 成功的인 경험의 提供을 通하여 건전한 自我概念을 조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學生들의 自我概念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는 보다 적극적인 方法이나 特別한 教育的 조치, 이를테면 집중적인 自我概念 育成 프로그램 등을 通하여 自我概念의 變化를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李鍾昇<sup>24)</sup>, 元鍾右<sup>25)</sup> 등의 研究에서는 집중적인 自我概念 프로그램을 實施하여 부정적인 自我概念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학습부진아의 勞力向上을 도모한 結果를 提示함으로써 自我概念의 變化可能性을 시사해 주고 있다.

自我(Self)에 관해서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研究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엽부터라고 본다. Wylie<sup>26)</sup>에 의하면 William James 가 1890년에 그의 저서에 自我라는 概念을 처음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부터 약 40년간 行動主義 및 機能主義 心理學의 발달로 自我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객관성을 강조하는 心理學者들에게는 주관적개념인 自我概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다가 다시 Freud 學派가 自我에 대하여 재조명하게 되었고, 行動主義 心理學의 단순 理論에 회의를 느껴 인간행동의 動機를 중시하게 되었다. Hilgard는<sup>27)</sup> 自我라는 概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22) Felker, D. W., & Slanwyck, D. J. General Self-concept and specific Self-evaluations after a academie tesk, Psychological Reports, (1971), p. 29.

23) Felker, D. W., & Thomas, S. B. Self-initialed Verbal reinforcement and positive Self-concept, child Development, (1971), p. 42.

24) 李鍾昇, "自我概念의 變化에 관한 實驗研究",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0), p. 181.

25) 元鍾右, "自我概念 育成 및 學習指導 프로그램에 의한 학습부진아 구제의 단계적 지도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p. 66.

26) Wylie, R. C. The Self concept, (Lincoln : University of Neberaska Press, 1961), pp. 136~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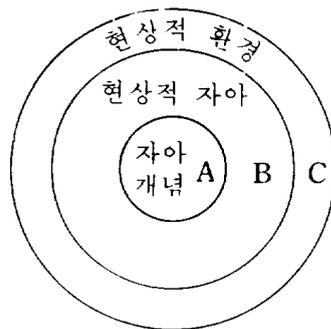
27) Wylie, R. C., op. cit., pp. 133~135.

인간행동의 機制를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自我概念은 心理學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각광을 받아 마침내는 Rogers 를 중심으로 하는 相談心理學者들에게는 自我概念이 핵심적인 것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自我概念에 관한 實證的 研究은 1940년대까지는 보잘것 없었고, 1950년대 부터 自我의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실증적 연구가 활발해졌다.

自我概念을 規定하는 定義가 다양한데 Hall 과 Lindzey 는<sup>28)</sup> 性格論理에서 사용되고 있는 自我概念을 크게 두 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하나는 自我概念을 人間行動의 決定要因으로 작용하는 心理過程의 한 集群으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한 個人이 그 自身을 對象化해서 知覺한 自己自身에 對한 태도나 느낌의 총체로 보는 見解이다. 前者의 見解를 가진 Allport 와 Murpy, 그리고 Murray 등은 自我를 人間行動의 가장 핵심적인 心理的 要因이라 했고, 후자의 견해를 主張하는 學者가운데 Sullivan 과 Horney 등은 社會的, 文化的인 面을 강조하면서 자아를 人間行動의 理論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보며, Snygg 와 Combs 는<sup>29)</sup> 自我概念이란 現象的 自我(Phenomanal Self)이며, 現象的 場內에 現象的 自己가 있고, 그 중심에 自我概念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번 형성된 自我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 2. 自我概念의 構成

自我概念에 대한 定義가 다양한 만큼 自我概念을 구성하고 있는 內容에 대해 서로 學識마다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Rogers 는<sup>30)</sup> 自我概念, 또는 自我構造를 “個人的 意識속으로



<圖一 1> Combs 와 Snygg 의 自我構造

資料 : Rogers, Carl 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51. p. 38.

28) Wylie R. C., Ibid., pp. 138~139.

29) Combs, A. W., & Snygg, D.,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New York: Harper & Brothers, 1959), p. 98.

30) Rogers, Carl 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51), pp. 3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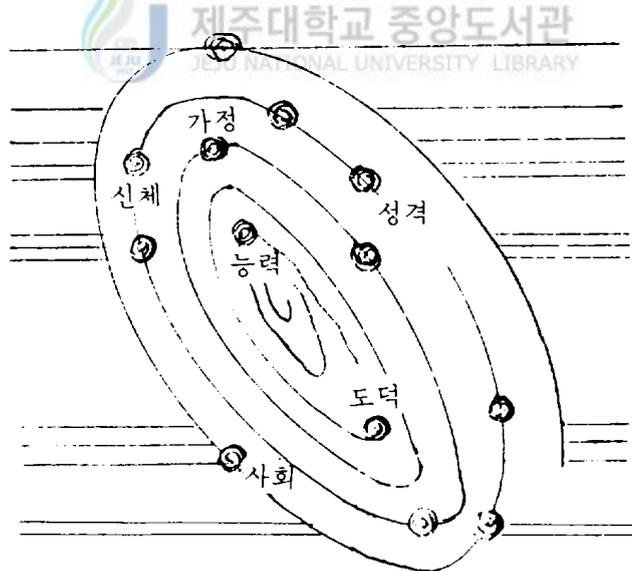
들어 올 수 있도록 容認된 自我知覺의 조직된 형태”로 定義하고, 그 構成 요소로서 自身의 性格, 능력에 대한 知覺, 타인이나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는 자신에 대한 知覺, 경험이나 어떤 대상물과 관련지어 知覺한 價値의 質, 그리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價値를 띠고 있는 것으로 知覺될 目標나 이상을 지적하고 있다.

Combs 와 Snygg 은<sup>31)</sup> 自我概念을 하나 하나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圖-1 參照)

외곽 圓(C)은 개인의 전체 知覺場으로서 여기에 自我概念, 現象的 自我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自我가 아닌 것(Not Self)까지도 포함된다. 중간 圓(B)은 現象的 自我인데 개인이 自己 자신을 보는 모든 方式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現象的 自我는 한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自我이다.

맨 안에 있는 圓(A)은 自我概念으로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知覺對象 中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自己 自身에 對한 知覺이다.

Purkey<sup>32)</sup>는 自我概念을 나선적 형태로 된 下位自我概念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下位自我概念들은 중심에 가까운 것일수록 심층적이며,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고, 중요한 것이며 중심에서 멀수록 불안정하며 덜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下位自我概念



<圖-2> 自我概念의 構造

31) Combs, op. cit., p. 39.

32) Purkey, W. W., The Search for Self. Florida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uncil. Research Bulletin, (1968), 4. pp. 373~374.

Purkey, W. W.,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70), pp. 165~167.

들은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며 同時에 전체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면서 심층 構造化 되어 있다고 보았다.

鄭元植은<sup>33)</sup> 自我概念을 “한 개인이 그가 처해 있는 생활의 場에서 自己自身 및 그의 주위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가를 말한다”로 定義하면서 그 구성 요소로서 身體的 自我, 道德的 自我, 性格的 自我, 家庭的 自我, 社會的 自我를 제시하고 있다.

金豪權 등은 이들 學者의 自我概念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입장을 종합하고, Purkey의 自我概念의 구조를 변형시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sup>34)</sup>(圖-2 參照)

### 3. 自我概念의 特性

自我概念의 特性에 관한 理論 가운데 대표적인 Rogers의 理論과 Purkey의 理論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Rogers는 그의 性格理論에서 종래의 여러 가지 自我에 관한 理論을 체계화하면서 自我의 特性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sup>35)</sup>

- ① 自我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 ② 自我는 他人의 가치관을 내적으로 投射하기도 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知覺하기도 한다.
- ③ 自我는 恒常성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 ④ 有機體는 自我와 일치하는 方式으로 행동한다.
- ⑤ 自我는 構造와 일치하지 않는 경험은 위협으로 知覺한다.
- ⑥ 自我는 成熟이나 學習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Rogers는 自我의 변화에 관해서 感情에 對한 관계의 변화, 體驗過程 및 體驗樣式的 변화, 個人的 構成概念(Personal Constructs)의 변화, 自己傳達에 있어서의 변화, 문제에 대한 관계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등의 相補的인 관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Purkey<sup>36)</sup>는 自我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信念, 態度, 意見의 集合體라 定義하면서 自我의 特性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33) 鄭元植, 「自我概念調查, 檢査法要望」, (서울: 培英社, 1968), p. 103.

34) 金豪權, 黃仁昌, 李在信, 盧京姬, “自我概念에 관한 擬似從斷的 研究”,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2卷 2號, 1979), p. 216.

35) 鄭元植, 前掲書, p. 104.

36) Purkey, op. cit., p. 3.

첫째, 自我는 組織的(Organized)이다.

自我는 일반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며, 調和와 질서로 특정지워진다. 個人은 自己 自身에 대하여 수 없이 많은 태도, 의견을 갖게 되며, 이러한 태도나 의견이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것은 지엽적인 것이 되어 그들 나름의 價値를 갖고서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간다.

둘째, 自我는 力動的(dynamie)이다.

Combs 와 Snygg 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은 주위의 事物을 自我라는 準據體制에 일단 걸러서 知覺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어떤 새로운 事象, 혹은 經驗에 부딪칠 때, 그것이 이미 형성된 自己의 自我組織과 일치될 경우에는 쉽게 용납되어 화합되지만, 상치될 경우에는 대개 무시되거나 왜곡해서 知覺된다. 自我概念의 변화에 있어서도 力動性은 작용한다. 自我概念을 몇 개의 同心圓으로 그린다면 중심점에 가까운 것일수록 변화에 보다 큰 저항을 할 것이다. 自我의 力動性 중 또 다른 특징으로 動機面에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개인 행동의 근저에 있는 동기가 自我를 유지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自我는 學習된 것이다.

兒童은 成長하는 과정에서 自己주위에 있는 의미있는 他人의 존재를 知覺하면서부터 自己와 自己아닌 것을 식별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자기는 독립된 하나의 객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고,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의견을 형성해 나간다. 이와같이 自我概念이 學習의 결과라는 견해는 社會心理學에서 지배적인 바, 그들에 의하면 自我概念은 인간관계를 통한 社會學習의 결과에 따라 형성, 발달되는 것으로 주로 모방학습과 역할학습에 의한다는 것이다.

한편, Secord 와 Backman 역시 自我概念의 形成에 관심을 갖고 모든 태도가 사회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거나와 自我概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정한 知覺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다.

- ①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에 대한 자신의 知覺과
- ② 자기에 대한 自己 自身の 평가를 社會規範이나 타인이 기대하는 그것과 비교하므로써 생기는 知覺이다.<sup>37)</sup>

Cooly 는 위와 같은 견해와 일치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自身の 知覺을 거울의 影像에 비유했다. 그리고 이것을 “거울에 비친 自我(looking-glass

37) 金號卷, 黃仁昌, 李在信, 盧京姬 共著, 前掲書, p. 113.

Self)”라 했다.<sup>38)</sup> 사람은 거울에 비친 自身の 얼굴, 외모 등을 볼 수 있는 것처럼 想像으로 자신의 외모, 성격, 행동 등에 관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知覺한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은 自我概念이 개인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형성 발달될 뿐 아니라 변화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 4. 自我概念의 變化

自我概念의 特性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自我概念의 形成에 있어서 환경, 特히 對人關係가 중요한 要因임을 알 수 있다. 즉, 自我概念은 成長過程에 접하는 중요한 인물과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學習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自我概念은 學習에 의하여 變化될 수 있다는 論理가 成立된다. 한편, 自我概念은 하나의 組織體이며, 恒常性を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自我概念이 일단 형성되면 저항하는 힘 때문에 여하한 수단을 써도 變化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은 自我概念이란 變化에 저항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 평생 여러 가지 경험과 타인의 知覺을 통해서 부단히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Raimy도 “自我概念은 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행동이나 충족되지 못한 欲求에 의해서 變化되고, 재조직되고 하였다.”(Combs 와 Snygg, p. 157)

李鍾昇<sup>39)</sup>은 否定的이거나 그에 가까운 自我概念을 갖고 있는 學生들에게 自我概念變化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좀 더 肯定的 自我概念의 방향으로 變化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假說을 가지고 실험하였다. 中學校 2學年 男學生 31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2時間씩 6일간 自我概念變化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自我概念이 意義있게 變化되었다.

### B. 自我概念과 衣服行動에 관한 考察

#### 1. 性格特性和 衣服行動

性格이란 個人이 그의 環境에 대하여 독특하게 적응할 수 있는 個人的 特性이거나 行動樣式의 全體的 組織體이다.<sup>40)</sup>

38) 上掲書, pp. 172~173.

39) 李鍾昇, “自我概念의 變化에 관한 實驗研究”, (行動科學, 4卷1號, 1971), pp. 19~30.

40) Hall, C. S. and Gardner Linzey,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0), p. 263.

H. J. Eysenck 는 性格을 다른 사람의 焦點的 差異에서 나타나는 個體의 모든 認知的·情意的·身體的 特徵의 統合된 組織<sup>41)</sup>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人間은 環境으로써 부여된 文化나 社會的 집단 組織속에서 各者 독특한 方法으로 欲求을 만족시키며, 그 과정에서 個個人的 役割을 통하여 서로 관련을 맺게 되며, 他人과의 접촉을 통하여 社會的으로 認定한 態度·理念·行動模型을 學習하면서 自身の 社會的 行動을 類型지우는 個人的 總괄적 構造인 Personality 를 가진다.<sup>42)</sup>

따라서 衣服의 使用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남으로서 着用者의 性格特性和 價値觀·經驗 등 各者의 環境에 대한 적응 形態를 보여 준다.

Ryan 은 自身の 性格特性和 自己自身の 衣服에 對한 評價 사이의 相關성을 研究한 結果에서 支配的 性格特性이 강한 사람은 自身の 衣服을 높이 評價하고, 自身の 衣服을 높이 評價한 사람은 自身の 身體的 特性和 自身感이 높다<sup>43)</sup>고 했다.

Morganosky 는 衣服流行에 對한 認識과 指導力과는 有意的인 關係가 있어서 指導者가 自身の 영향력을 集團內에 반영 확대시키는 道具로서 衣服을 使用한다<sup>44)</sup>고 하여 青年期의 社會化과정에서 特히 衣服行動은 중대한 것이라 하였다.

최혜선<sup>45)</sup>은 社會的 安定感이 높은 사람이 個性的인 衣服에 더 관심이 많다고 했다.

Latzke 와 Hostetter 는 社會的 安定感이 낮은 사람이 衣服行動에서 同調성을 重要視한다<sup>46)</sup>고 했으며, 流行은 불안한 사람에게 心理的 도움을 주고 있으며 自己自身과 같은 目的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感覺을 同時에 갖게 한다<sup>47)</sup>고 했다.

Lapitsky 는 社會的 不安感—安定感과의 衣裳의 價値觀間에 相關성을 研究하였는데 不安感이 높은 사람은 衣裳의 추종성과 社會性을 중요시 하였고 安定感이 높은 사람은 衣裳의 心理的인 面을 중요시 하고 있다<sup>48)</sup>고 했고 Brady 는 女大生の 社會的 安定感和 衣裳에

41) Eysenck, H. J. W. Arnold., Meili, R., Encyclopedia of Psychology, (London: Search, 1972), pp. 105~107.

42) 高永禎, 「현대사회 심리학」(서울: 법문사, 1973), p. 96.

43)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ub., 1966), p. 113.

44) Moganosky, M. and A. M. Creekmore, Clothing Influence in Adolescent Leadership Ro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9, No. 4,(1981), pp. 92~97.

45) 최혜선, “의복행동과 사회적 안정감 불안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pp. 47~49.

46) Latzke, A. and H.P. Hostetter. The wide world of Clothing. (N. Y: The Ronold Press, 1968), pp. 173~175.

47) Anspach, K., The why of Fashion, (Iowa State Press, 1967), pp. 147~149.

48) Lapitsky,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ng 를 인용한 Laubach(1972), pp. 312~315.

대한 態度에서 不安感이 높은 集團은 衣裳의 실험적 使用 외모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49)</sup>고 했다.

김경희는 女高生の 衣裳興味와 性格特性要因인 支配性·男向性·社會性 등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sup>50)</sup>

따라서 스스로의 용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女大生들에게 衣服이 社會心理的 影響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2. 衣服興味와 衣服行動

Warren 은 興味란 어떤 對象에 特別한 關心이나, 注意를 하게 하는 感情(feeling)이라고 定義하고 있다.<sup>51)</sup>

사람들은 저마다 興味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衣服에 對한 興味는 個人的 여러가지 環境條件에 따라서 다르다고 先行研究들이 報告하고 있다.

衣服에 對한 興味란 의복의 선택이나 着用, 손질 또는 이와 관련되는 活動에 特別히 관심이 많아서 金錢 또는 에너지 등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나 기울이려고 하는 행위<sup>52)</sup>라고 定義하였으며 衣服에 對한 興味가 많으면 많을수록 衣服에 관련된 事實들을 더욱 많이 알게 된다.

Roseneranz 는 그의 研究에서 衣服에 投資하는 時間, 努力, 經濟, 注意集中의 程度로써 衣服興味를 測定할 수 있으며 年齡, 居住, 地域, 職業, 收入과는 有意的인 關係가 있다<sup>53)</sup>고 하였으며 年齡이 많은 女性보다 젊은 女性이 衣服興味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고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아짐에 따라 衣服興味가 增加되기 때문에 社會階層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衣服興味가 높고 月收入이 적은 女性이 衣服興味도가 낮으며 都市에 사는 女性이 地方에 사는 女性보다 衣服興味가 높다고 했다.

女性的 職業과 衣服興味 間의 상관연구에서 이 인자는 女性的 職業과 衣服興味와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申貴姬는 價値觀과 衣服興味와의 상관연구에서 審美的 價値觀이 높

49)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서울:연세논총 제11집, 1974), pp. 349~374.

50) 김경희, "女高生の 衣裳興味와 性格特性과의 상관연구", (서울: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p. 39.

51) Warren, H. C. Dictionary of Psych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34), p. 141.

52) 李仁子, "의상흥미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3 집, 1980), p. 86.

53) Roseneranz, M. L., A Study of Woman's Interest in Clothing. (Journal of Momics, Vol. 4, 1949), pp. 101~103.

은 사람은 衣服디자인 및 流行에 관한 興味와 의류 및 악세사리 쇼핑에 관한 興味가 높았다<sup>54)</sup>고 했다.

그러므로 衣服興味와 個人的 性格特性과의 관계를 알아 본다는 것은 衣服의 社會心理學的 見地에서 매우 興味있고 同時에 衣服着用的 心理的 效果를 理解하고 나아가 이를 性格形成과 變容에 活用한다는 것은 服飾指導面에서도 實際的인 價値가 設定된다고 할 수 있다.

### 3. 自己尊重感과 衣服行動

Stone 은 “外樣은 相互間的 身分에 나타내기 때문에 社會的 相互作用에 있어서 옷차림, 外樣이 중요하다”고 했고,<sup>55)</sup> Hambleton 은 “靑少年期 그의 外貌에 대한 개념은 그의 自我概念의 한 部分이라고 主張했다.”<sup>56)</sup> 이와 같이 衣服은 대인 관계에서 社會心理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한편, 身體像은 自我概念의 一部이다. 身體像은 James 의 物質的自我와 Ryam 의 身體的自我에 包含된다. 그런데, 自身の 身體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우 보통 衣服을 입고 생각하기 때문에 衣服은 身體像의 一部가 된다. 그리고, 理想的 身體像과 認知된 身體像과의 差異는 適應의 정도를 測定하는 데 使用된다. 즉, 差異가 적을수록 각 個人은 더 쉽게 身體的·情緒的으로 그들 스스로 滿足해 할 것이다.<sup>57)</sup> A. E. Snyder<sup>58)</sup>의 研究에서 自己受容과 自己尊重感은 身體的 滿足도와 衣服行動과 관계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自己尊重感이 높다는 것은 自己受容을 意味하고 自己尊重感이 낮다는 것은 自己否定을 意味한다.<sup>59)</sup>

Maslow 의 欲求理論에 의하면 自己尊重性이란 모든 人間의 一般的인 欲求이다.<sup>60,61,62)</sup>

54) 申貴姬, “가치관과 의상흥미와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p. 46.

55) William, M. C. and Eicher, J. B. Teen-Ager'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 of H. E., Vol. 58, No. 6,(1966), p. 457.

56) Hambleton, K. B., Roach, M. E., and Ehle, K.,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 and Self-concepts, J. of H. E., Vol. 64, No. 2,(1972), pp. 272~275.

57) Horn, M. J., and Gural, L. M., The Second Skin 3rd ed.(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p. 332~335.

58) Ibid., p. 142.

59) Benson, C. A., Clothing Conformity Attitudes as They relate to Level of Self-Esteem among Adolescent Girls, Unpub. Thesis M. S., Univ. of Tennessee,(1971), pp. 135~137.

60) Ibid., p. 138.

61) 金貞圭, 孫直銖, 「教育心理學」(서울: 教育出版社, 1984), p. 332.

62) 李仁子, 「복식사회 심리학」(서울: 修學社, 1984), p. 158.

Cowen<sup>63)</sup>의 研究結果는 自己尊重感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適應性이 좋은 姿勢로 反應했음을 提示하고 있다. 또한, 自己尊重感이 높은 사람은 그들 自身에 대하여 더 肯定的인 態度를 보였고, 그들 自身の 評價에 있어서도 더 安定的이었다.

衣裳만큼 눈에 띄게 自我의 面을 보여 주는 것은 없고, 또 衣裳은 自我의 否定的인 느낌보다 肯定的인 느낌의 根源이 될 때가 더 많다. 또 衣裳은 自我, 價値, 感情을 回復하는 데 關係되기도 한다. Ryan은 우리 自身の 密接한 一部分이 되며 個人의 自我概念을 直接 表現해 주는 行動이라고 敘述하고 있다. 즉, 衣裳은 自我를 높이는 데 있어서 重要的인 要素가 되며, 肯定的으로 使用될 때 自己受容, 自己尊重感에 寄與한다.<sup>64)</sup>

Cressman은 靑少年의 自己尊重感은 가끔 그의 옷으로 表現된다고 했고, Horn은 自我高揚에 있어 重要的인 力點이 되며, 그리고 自己尊重水準을 改善하는 手段으로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서 衣服을 들고 있다.<sup>65)</sup> Miller<sup>66)</sup>등에 의하면 衣服은 積極的인 自己表現 뿐 아니라, 약한 自我像을 克服하는데 使用될 수 있다고 했다. Drake와 Ford는 靑少年들이 他人과 같이 옷입게 許諾하는 것은 自我發達을 돕고 自己受容을 더 強化시키도록 할 것이다<sup>67)</sup>라고 했다.

人間은 自己信賴가 稀薄할 때 他人을 따르는 傾向이 強해진다<sup>68)</sup>고 볼 수 있으며, 信賴感은 그들의 同僚 集團의 標準에 의해서 잘 입었다고 느낄 때 增加된다고 했다.<sup>69)</sup> Ford와 Drake의 研究에서 自己尊重感은 身體 滿足과 正的인 關係가 있었으며, 自己尊重感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衣服使用을 통해 注意集中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sup>70)</sup> Humphrey 등의 高等學校 男女 學生을 對象으로 한 研究에서도 自己尊重感이 높은 學生들은 衣服의 美性을 重要視하였고 衣服을 注意集中을 위한 手段으로 使用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sup>71)</sup>고 하였다. 한편, Dicipio와 Trudeau의 研究는 몸 端裝 條件을 통한 積極

63) Benson, op. cit., p. 13.

64) Horn and Gurel, op. cit., p. 227.

65) Burger, G. D.,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as They Relate to Clothing Attitudes: A Comparison of Freshman and Junior Collage Woman, Unpub. Thesis, M. S. Univ., of Tennessee, 1. (1976), pp. 97~98.

66) Miller, F. G., Davis, L. L., Rowold K. L.,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 E. R. J., Vol. 10, No. 4,(1982), p. 368.

67) Drake, M. F., and Ford, I. M., Adolescent Clothing and Adgustment. H. E. R. J. Vol. 7, No. 5, p. 290.

68) Horn and Gurel op. cit., p. 227.

69) Kefgen and Ta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othing Sela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New York : Macnillan Publishing Co., Inc., 1976), pp. 174~176.

70) Ford, I. M. and Drake, M. F.,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 E. R. J. Vol. 11, No. 2,(1982), p. 194.

71) Hunphrey, C., Kleasen, M. and Crrekmore, A. M.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sents, J. of H. E. Vol. 63, No. 4,(1971), p. 250.

的 自己 尊重感의 高揚을 질병의 好轉에 도움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sup>72)</sup>

Humphrey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自己尊重感이 높은 少年 少女들과 不安定성이 높은 사람들이 同時에 같은 衣服使用에 대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衣服은 環境的 狀況을 克服하는 手段으로서 뿐 아니라 自己 表現의 手段으로서의 二重의 目的으로 使用된다는 事實을 支持한다고 했으며 이로서 衣服이란 靑少年의 自己價値 감정이나 不安感 中 어느 것 하나를 反映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3)</sup> 藤原康晴의 研究는 社會的 受容과 自尊感情과는 負的 상관을 나타냈다<sup>74)</sup>고 했는데 즉, 自己尊重感이 낮은 사람은 他人의 意見을 重視하여 衣服을 선택한다는 研究結果를 提示하고 있다.

#### 4. 適應 및 社會參與도와 衣服行動

以上과 같이 自我意識의 主要한 一面을 形成하고 있는 衣服은 곧 自我의 表現이 되며 社會的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要素가 된다. 社會生活의 特性的 要素 中の 하나는 한 社會內에서 個人的 社會的 位置를 判別해 주는 데 必要한 많은 象徴들 혹은 證據들의 存在이다. 이러한 證據들 中の 하나로서 衣服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sup>75)</sup>

Vener 와 Hoffer 의 研究는 靑少年들의 組織 活動 參與가 더 많을수록 衣服缺乏에 대한 表現이 덜 頻繁하다고 했고<sup>76,77)</sup> Kelly 등은 學生들의 옷이 그 狀況에 不適合하다고 판단될 때 衣服은 社會生活 參與를 制限한다고 했다.<sup>78)</sup>

이와 같이 의복에 대한 態도와 個人的, 社會的 적응사이에는 관련성이 存在한다는 觀點에서 Drake 와 Ford 등의 衣服態도와 個人的 적응, 社會的 適應사이의 관계연구에서 衣服態도와 社會的 適應 사이의 연관보다 個人的 適應사이의 연관이 더 크다고 밝혔다.<sup>79)</sup> Collins<sup>80)</sup>는 그의 研究에서 社會的, 情緒的으로 混合된 問題를 갖고 있는 여자 靑年들의

72) Disipo, W. J., Trudeau, P. F., Sympton. Changes and Self-Esteem as Correlates of Positive Conditioning of Grooming in Hospitalized Psychotics, J. of Abnormal Psychology Vol. 20, No. 3,(1972), p. 248.

73) Humphrey, Klaasen, and Creekmore, op. cit., pp. 249~250.

74) 原康晴, 前掲書, p. 550.

75) Roach, M. E. Eicher, J. B., Dress, Adornment, and Social,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76, 1976, pp. 301~304.

76) Ibid., pp. 79~80.

77) Drake and Ford, op. cit., p. 284.

78) Ibid., p. 285.

79) Drake and Ford, op. cit., p. 285.

80) Collins C., Effects of a Self-Improvement Course on Self-concepts of Adolescent Female clients J. of Psychology. Vol. 80,87,(1972), pp. 197~199.

自我概念은 衣服을 통한 自己改善 치료에 의해 改善되었음을 제시하므로서 衣服은 社會的, 情緒的 問題의 해결에 一部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sup>81)</sup> Creekmore는 男·女 高校生들의 매력적 衣裳은 同調性, 活動 參與도와도 意味있는 관계가 있음을 제시했고 Ryan은 衣服은 靑少年 少女들의 社會的 狀況에 있어서 분위기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sup>82)</sup> 또한, 그는 衣服에 대한 興味가 낮은 集團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거나 環境에 依存하는 傾向이 낮았고, 반면 興味가 높은 集團은 적응을 통해서 環境에 더 의지하고 敏感하며, 압력에 의해 반응적이며 또한 옷에 興味가 높은 사람은 더 社交的이고 他人에 대한 依存도가 높다고 했다.

朴贊富<sup>83)</sup>의 研究는 誇示慾求가 높은 사람은 衣服에 대한 興味性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Horn<sup>84)</sup>등은 同調性에 대한 태도는 他人과의 調和있는 관계를 維持하기 위한 慾求와 관계된다고 했다. 辛五順<sup>85)</sup>등의 研究는 安全性이 높을수록 外貌상의 同調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Taylor와 Compton<sup>86)</sup>의 연구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높은 社會性은 衣服의 同調性和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5. 女高生の 衣服行動 考察

Block는 衣服選擇 過程에서 親子間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갈등<sup>87)</sup>을 調査한 결과 11,12학년에서는 衣服과 外貌에 대한 충돌은 없었으나, 父母와의 衣服選擇間의 갈등이 7학년에서 10학년 까지는 감소한 반면, 11,12학년은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

Silverman<sup>88)</sup>은 衣服에 대한 滿足, 不滿足에 對한 심리 상태의 靑少年 行動의 研究에

- 
- 81) Creekmore A. M. Clothing and Personal Allevitiveness related to Conformity to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Leader Ship Potement, H. E. R. J. Vol. 8. No. 3,(1980), p. 203~204.  
 82)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New York : Holt, Rincharl and Winston Inc., 1966), pp. 214~216.  
 83) 朴贊富, "의상행태와 욕구와의 關係연구", (서울 : 仁荷大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6輯, 1980), p. 151.  
 84) Horn and Gurel, op. cit., p. 229.  
 85) 辛玉順, 徐鳳廷, 李順媛, "自我正體感과 外貌를 통한 自我概念 및 個性에 관한 衣服 心理學的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2卷2號, (1978), p. 224.  
 86) Taylor L. G. and Compton, N. H. Personality Correlates Dress Conformity J. of H. E. Vol. 60, No. 8,(1968), p. 655~656.  
 87) V. L. Block, Conflicts of Adolescents with Their Mothers, J. of Abn, Psychol, 32,(1937), p. 193~206.  
 88) S. Silverman, 1945, p. 140을 인용한 Ryan,(1966), p. 290.

서, 좋은 外貌는 自身感 形成에 영향을 준다고 報告하고 있으며 King<sup>89)</sup>은 靑少年의 欲求 不滿은 그룹에 同調하지 않는 옷을 부과하는 父母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다.

Pearson<sup>90)</sup>은 Bernreuter Personality Inventory Test 를 사용하여 研究한 결과, 색상 選好범위가 넓은 被驗者가 感情的으로 균형잡힌 경향이 있으며, 외향적이고, 지배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색상 選好範圍가 좁은 사람은 고독을 혐오하고, 충고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Coblinger<sup>91)</sup>는 流行에 쉽게 同調하는 少女集團의 特性은, 同性을 意識하고, 流行집착 (Fashion Adherence)의 方法으로 권위와 地位에 대항하고 衣服의 統一性(Uniformity)에 만족해함을 發見했다고 報告하고 있으며,

Jenking<sup>92)</sup>는 同調性和 衣服態度, 行動사이의 관계를 研究한 결과, 同調성이 높은 學生들은 同年輩集團의 着用衣服에 대한 意識도가 높았고, 대화의 主題로서 衣服이 자주 登場하였으며, 맞음새(Fitness)와 단정함에 관심이 높았다고 하고 있다.

Ryan<sup>93)</sup>은 잘 입었다거나 초라하게 입었다는 心理 상태와 行動因子와의 相關性 研究에서 衣服은 自身感 있는 行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Vener<sup>94)</sup>의 靑少年 衣服行動에 관한 연구에서, 衣服行動에 영향력이 큰 사람은 어머니와 同僚이었고, 아버지는 낮게 나타났으며, 兄弟가 있는 경우는 兄弟, 姊妹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인<sup>95)</sup>은 女子 中·高等學生의 衣服行動을 최정훈의 지각향성 검사, Laubach의 行動檢査, 衣服行動 檢査를 사용하여 검사한 결과, 行動方向 및 지각향성과 校服着用 態도와는 意義있는 상관계수가 없었고, 行動方向 및 지각성향은 衣服의 同調性에서만 意義있는 負的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일반적인 衣服行動에 대한 學校集團間의 比較結果는 衣服의 同調性에서는 差異가 없었으나, 정숙성, 流行에서는 中·高等學校사이에서, 高等學校 集

89) B. King, A Study of the Role of Clothing in Family Relationships in 25 Selected Families, (1973), pp. 332~335.

90) L. H. Pearson, teenagers's Preference in Chothes, J. of Home Ec, (1950), p. 801~802.

91) A. M. Coblinger,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1963), p. 10.

92)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New York:Renchart and Winston, Inc., 2, 1966), p. 150.

93) Ibid., p. 290.

94) A. M. Vener and C. R. Hoffer, Adolescent Orientations to Clothing Tech, Ball 270, Mich, State Univ., (1959), pp. 97~99.

95) 김영인, "여자중·고등학교 學生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p. 56.

團안에서는 정숙성만 意味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報告하고 있으며, 최혜선<sup>96)</sup>은 女高生을 대상으로 Creekmore의 衣服變因 檢査를 수정, 보완하여, 衣服行動을 檢査한 結果, 衣服行動變因 中 興味性, 社會的 인정성, 심리적 의존성, 예의성, 심미성 등이 社會的 安全感, 불안감과 有意的인 관계가 있었고, 衣服行動 變因 順位는 예의성, 편이성, 심미성,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관리성, 社會的 인정성, 주의집중이며, 흥미성, 예의성, 주의집중성, 심미성에서 學年間 差異가 있다고 報告하고 있다.

### C. 教育에 있어서 自律化的 重要性

#### 1. 自律의 基本理念

##### a. 外國의 自律化 理念

個人的 外貌(Personal appearance) 表現의 自由(expression) 그리고 學生活動的 自律性을 包含하고 있다. 즉, 人間은 自己 外貌를 自身の 個性에 맞추어 가꾸고 다듬으며 表現의 自律은 內的인 心性 혹은 審美感을 言語的 形式 또는 衣服의 색깔, 디자인 그리고 其他 상징적인 形態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學生行動의 自律은 個人的 集團의인 參與活動 意思決定을 意味하며 스스로 問題를 解決하는 性向을 길러 주는데 있다.<sup>97)</sup>

##### b. 內國學者의 基本理念

안창일<sup>98)</sup>에 의하면 自律이란 自身の 行動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뜻으로 영어의 Self-Control과 같은 意味이다. 心理學的으로 이를 해석하면 欲求를 충족시키고 충동을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더 큰 만족을 期待하는 것으로 즉 欲求의 充足을 잠시 지연시키는 일을 말한다.

李奎浩는 元來 教育에 있어서 自律이라고 하는 概念은 자라나는 兒童들에 대한 教育을 政治 宗教的인 압력으로 부터 解放시키고 자라나는 兒童들에게 앞날의 無限한 可能性을 열어주자는 意味을 담고 있으며 19세기 末부터 20세기 初期에 있어서 구라파에서는 教育의 自律性이라고 하는 것이 宗教的인 압력으로부터의 解放을 뜻하였으며, 教育의 自律性

96) 최혜선, "衣服行動과 社會的 安定感, 불안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p. 47.

97) 金炳聲, 「自律化와 學生指導」,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第4卷5號, p. 13.

98) 안창일, "自律化時代 中高生の 校外生活과 異性交祭", 第8回 靑少年 심포지움, (서울: YMCA, 1982), 12, 3, pp. 41~42.

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學父母의 압력으로 부터 자라나는 兒童들을 解放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99)</sup>

## 2. 教育의 自律化

모든 國民이 한결같이 바라는 政治發展 못지않게 重要的 것이 自律化에 바탕한 教育風土의 造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第二十七條 第四項에 教育의 自主性和 政治的 中立性은 保障되어야 한다고 成文의 規定을 하고 있으며 教育法 第14條에도 國家와 地方公共團體는 教育의 自主性을 確保하며 公正한 民意에 따라 각기 實情에 맞는 教育行政을 위하여 必要 적절한 기구와 施策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어 教育의 自主性 保障을 明示하고 있다.

이처럼 教育에 있어서 自主性이나 自律性은 왜 保障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教育은 本來의 機能이 있기 때문에 이를 完全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教育 스스로가 方向을 잡고 存續 維持되어야 한다”<sup>100)</sup>는 것이다.

教育은 政治, 經濟, 宗教로부터 直接 그 目標과 方法에 관해서 命令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教育은 스스로 責任을 지고 무엇이 그의 課題인지, 어떻게 教育할 것인지를 決定해야 한다. 教育이 全體的인 삶을 위해서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 教育은 自身의 本質적인 法則을 따라야 한다.<sup>101)</sup> 教育이 어떤 強制的인 命令에 의해서 外部的인 目的에 따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人間性을 形成할 것이 아니라 自由롭게 스스로의 責任아래서 目標을 設定하고 方法을 研究해야 한다<sup>102)</sup>는 原理인 것이다. 즉, 教育은 專門職이며, 專門職의 속성은 外部的 指示나 命令, 統制를 他律的·劃一的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役割 遂行에 있어서 다양한 方案을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융통성과 意思決定에 있어서 高度의 自律性이 要求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教育에 있어서 自律性이 지니는 價値와 重要性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sup>103)</sup>

a. 自由나 自我決定으로서의 自律은 그 自體가 人間存在의 先天的인 欲望中的의 하

99) 李奎浩, 「教育과 思想」(서울: 培英社, 1977), p. 68.

100) 白賢基, “教育의 自主性을 위한 文教政策 樹立上의 問題點”, (서울: 延世大學校 教育論文集, 第3輯, 1970), p. 229.

101) 李奎浩, 前揭書, p. 69.

102) 白賢基, 前揭書, p. 300.

103) 韓明希, 「教育의 自律化方向」(서울: 새교육 通卷 305호, 1980, 3), pp. 26~35.

나이며 本質的인 目標中の 하나이다. 人生이 主觀的으로나 客觀的으로 바람직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 生活이나 行動이 主體의 內面으로부터 出發되어 決定될 것을 條件으로 하기 때문이다.<sup>104)</sup> 즉, 自律은 人格形成 要素의 하나이다.

b. 自律은 道德性의 한 要素이기도 하다. 自律性이 전혀 없는 人間을 로봇(Robot), 혹은 기계라 하고 自律性의 條件인 自由가 없는 者에게 道德的 責任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自由로운 人間을 人格의 最高 境界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教育의 目標로서 自律은 獨立的 人間, 自主的 人間, 個性있는 人間 등과도 通하는 目標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直接으로 自律的 人間의 目標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c. 人間의 自由化는 民主化의 한 척도이며, 同時에 政治發展, 社會發展, 教育發展의 指標가 된다. 民主政治는 人間의 自然狀態이며 천부의 權利인 自由를 保障하기 위한 制度이며 이 自由는 온 國民을 基반으로 했을 때 올바른 價値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自由의 價値는 平等과 共存할 수 있어야 하며 平等의 秩序를 파괴하는 自由란 意味를 잃기 마련이다.

d. 自律化는 創意力을 조장하고 劃一化를 막으며, 教育에 있어서 專門性과 多樣化가 자리를 잡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指示와 下達」中心의 中央集權的 教育속에서는 그대로 服從만 하게 되므로, 생각하고 研究할 필요가 없고 責任을 질 必要도 없을 뿐 아니라, 創意的이고 專門的이 될 必要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中央集權的 體制는 社會發展과 教育發展을 저해하는 原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 社會에서 教育의 自律性은 尊重되고 또 保障되어야 하며, 이는 곧 社會發展과 教育發展을 이룩하는 길인 것이다.

### 3. 自律化의 條件과 校服의 自律化

自律이란 象徴的인 意味로 말하자면 다른 것에 制約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行爲를 制御하는 일(Self-restrain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人間의 自律的이라는 것은 一次的으로 自身의 行動, 目標와 手段을 決定할 수 있고 外部의 介入이나 權威에 의해서

104) Harry, S. Broudy, building a Philosophy of Education,(New York : Prentice-Hall Inc. 1961. 3rd Edition, 1976), p. 4.

도 강요받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人間은 社會的 動物이며 人間の 行動은 언제나 社會的 상황이기 때문에 人間の 人間된 속성은 항상 社會的 產物로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自律의 意味는 一般的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社會秩序와 構造속에 있는 구속력과 限界 속에서만 論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自律化는 그 社會의 여러가지 여건들, 즉, 社會體制, 人間構成, 政治, 社會, 經濟的 要因들의 條件에 따라 具體的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教育의 自律化 程度는 그 社會의 一般的 政治의 自律化가 可能的 程度와 比例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現代社會와 같이 모든 決定에 있어서 相互 依存度가 높은 共同 運命體 속에서는 社會統制라든가 社會計劃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自律化는 그러한 맥락속에서 論議되어야 한다.<sup>105)</sup>

어느 社會든지 指向하는 目標가 있고 教育은 그것을 反映해야 하는 限 社會計劃과 社會統制는 必然的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現代社會에서는 自律과 統制는 相反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自律은 항상 統制의 맥락속에서 計劃되어야 하고, 統制는 自律을 極大化하는 方向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社會統制와 計劃은 眞定한 意味에서 自律의 前提條件이며 그렇다고 統制가 반드시 자율의 成長과 擴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意圖的인 社會統制는 人間の 自律이 條件으로서의 自律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限定시킬 수도 있다.

中·高等學生들의 校服 自律化 問題도 마찬가지로 問題라고 볼 수 있다. 校服이 없이 각자 마음대로 自由服을 입게 할 것인가, 아니면 校服은 있되 學校나 地域社會의 自律에 맡길 것인가의 問題는 결국 어떤 決定이 結果的으로 個人의 自由를 어느 程度로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데 基準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만일에 校服을 없애고 각자 個性에 따라 입게 한다면 이것은 自由를 증가시킨다고 一次的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대다수 서민층의 經濟的 부담에서 오는 괴로움과 劣等感, 個人間的 經濟的 격차에서 오는 갈등을 誘發하는 結果를 가져온다면 결국 個人의 福祉를 增加시킨 것이 못되고 自由를 增加시킨 結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民主主義 社會에서 自由의 價値는 平等이나 福祉라는 것을 떠나 따로 存在한다면 本來의 意味를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現代社會에서 教育의 自律化의 具體的 意味와 內容의 決定은 다음과 같은 條

105) 韓明希, 前揭書, p. 26.

件을 滿足시키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校服의 自律化 여부나 自律化의 程度 및 具體的 內容의 決定은 아래의 條件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a. 社會의 모든 構成員 즉, 決定에 영향을 받는 모든 構成員이 그 社會의 教育的 決定인데 참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 決定에 영향을 받는 모든 構成員의 利益을 계산해서 決定해야 된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社會 構成員은 그들의 뜻대로 統制의 方向을 決定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學生 服裝問題에 관련된 構成員 즉, 直接 校服을 着用하는 學生, 그리고 學父母, 教師, 社會의 輿論이 決定의 要因이 된다 하겠다.

b. 社會의 福祉와 構成員 全體의 人間으로서의 成長과 發展을 가져오는 統制가 결국 自由를 촉진하는 것이며 自律의 前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校服의 形態나 自律化의 水準이 中·高等學生들의 身體的 發達, 精神的 發達, 그리고 社會性 發達 過程上的 특징을 고려하여 教育目標와 理念을 具現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고려되어야 한다.

c. 모든 統制는 合理的 研究의 기초위에 세워져야 하며 權威의 主導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變하는 指示的인 것은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校服의 自律化 여부를 單純히 몇몇 教育行政擔當者의 價値觀이나 主觀的 판단에 의하여 決定하여서는 안되고 이 問題에 관련된 여러 要因들을 고려하여 넓은 研究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 4. 校服 自律化의 重要性

舊韓末 開化期 이후 新式學校의 設立과 함께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70여년간 지속되어온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校服과 머리모양이 自律化되었다.<sup>106)</sup> 우리 生活에서 오랫동안 社會的 禁忌의 하나였던 中·高校生의 削髮 및 校服制度는 그 나름대로의 長點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物理的 拘束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自律化 措置는 틀에 갇혀 있던 奔放한 成長期의 中·高校生을 해방시켜 마음껏 個性을 發揮하고 美的感覺을 啓發할 수 있게 하였다.<sup>107)</sup> 이같은 自律化의 目的은 廣義로 보면 學生個人的 自律性を 함양하고 責任과 秩序意識을 갖도록 하며 個性을 發揮하여 創意力을 發揮, 啓發할 줄 아는 人間育成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 狹意로는 깨끗한 몸가짐을 갖도록 하여 장차 그들이 成人이 되었

106) 黃哲秀, “自律化施策에 따른 生活指導”, 文教行政, 통권 제 1 호, (1982), p. 1.

107) 自律化措置와 自主意識: 社說, 서울신문, (1982, 1, 5), p. 3.

을 때 紳士淑女로서 세련된 용모를 갖추게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sup>108)</sup>

自律化 措置의 背景을 살펴 보면 1981년 10월 하순 '88서울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직후 大統領 閣下의 「教育的 側面과 社會經濟的 側面에서 校服을 自律化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提意에 따라 文敎部에서 研究檢討해 國會 文公委員들의 協議를 거쳐 1982. 1. 4 일 정부에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sup>109)</sup>

自律化 措置의 意味는 教育的 側面과 社會經濟的 側面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教育的 側面에서는 學生들이 지금까지 橫的으로 民主敎育을 받으면서 從的으로는 劃一的인 敎育氛圍氣 속에서 命令과 복종만을 강요받아와 身體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많은 變化를 겪고 있는 學生들로서는 心理的으로 위축되고, 社會的으로 疎外感을 느껴 不心要한 저항심과 反撥意識의 싹텃고, 너무 획일적인 價値觀만을 강요받고 자라서 多樣하고 高度화된 民主開放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能力이 결여되었으며 校服과 自由服을 着用하는데서 오는 이중생활을 강요받아 왔었다.<sup>110)</sup> 과거 傳統的인 우리사회에서는 항상 學生들의 행동에 대하여 自律的인 판단을 기대하기 보다는 他律的인 規制에 依存하였던 實情이며 指導方法은 「무엇무엇은 하지 말라」는 식의 금지일변도 있었다.<sup>111)</sup> 이같은 敎育風土를 改善하여 그들이 그들自身을 스스로 결정하고 責任질 수 있는 能力을 養成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의 방법을 外形的이고 他律的인 面에서 內面的이고 自律的인 面으로 轉換하여 보자는데 服裝自律化에 대한 教育的 意味가 있다고 하겠다.<sup>112)</sup>

社會經濟的 側面에서는 汎世界的인 國際化時代에 따라 이미 세계는 일일생활권화 되었고, 한 나라의 文化나 관습이 국경안에 머물러 있던 時代는 지났으며 요즘 「地球村」이라는 말이 저항감없이 쓰일 정도로 지구가 좁아졌고 모든 나라가 이웃화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에서 한 나라나 民族이 自己나름대로의 傳統的 生活習慣이나 制度에 대해서 지나치게 執着하거나 固執한다면 그 社會的 國際的 發展은 그만큼 지연될 것이다. 아뭏튼 國際化時代에 사는 20C 후반의 사람들은 國籍과 言語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時代가 갖는 共通的인 感覺에 무디어진다면 國際社會에서 낙후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sup>113)</sup>

우리의 經濟水準도 이제는 先進國의 추세를 참작할 程度에 이르렀으며 과거 日帝下나

108) 黃哲秀, 前揭書, p. 67.

109) 校服·頭髮자유화...李文敎에게 들어본다, 조선일보, (1982, 1. 6), p. 6.

110) 生活指導 獎學官室, 中·高校生の 校服과 머리모양의 自律化, 文敎行政, 통권 제 1 호, (1982, 1), p. 2.

111) 尹松然, 自律化時代, 新敎育研究, 제 2 권 제 5 호, (1982), p. 125.

112) 黃哲秀, 前揭書, p. 67.

113) 尹松然, 前揭書, p. 125.

전후 혼란기에 있었던 빈궁의 狀態에서 헤어났다. 그 당시 社會·經濟的 與件으로는 校服이 唯一한 外出服이자 自由服이었겠지만 오늘날 우리 경제는 高度의 成長을 거듭하여 대다수 학생들이 한두 벌 이상의 私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등교함으로써 家庭과 學校, 學校와 社會의 자연스러운 연계 속에서 바람직한 教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點에서 실로 意味가 크다고 하겠다.<sup>114)</sup>

以上에서 살펴 보았듯이 頭髮 服裝의 自律化는 自體的인 民主市民을 기르는데 그 價値가 認定될 뿐만아니라 國家政策的인 次元에서도 肯定的인 效果가 期待되고 있다. 그러나 學生들이 自律化를 認識하고 있는 程度와 自律化를 받아들이는 態度에 따라서 自律化는 오히려 逆機能을 수행할 可能性도 있다. 다시 말해서 自律化의 純機能과 逆機能은 상당한 정도로 自律化를 實踐하는 學生의 認識과 態度如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自律化에 대한 學生의 認識 및 態度調査는 自律化로 因하여 豫想되는 問題點을 豫見케 하여 주고 自律化에 대한 學生들의 그릇된 見解를 바로잡아 주는 基礎資料가 될 것이다.



114) 生活指導 獎學官室, 前掲書, p. 54.

### III. 研究의 方法 및 節次

#### A. 研究의 道具 및 調査對象

##### 1. 道 具

本 研究에서는 세가지 종류의 측정도구를 使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校服自律化에 對한 基礎調査紙와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에 對한 調査紙이고 또 하나는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 對한 調査紙등을 教師作成檢査로 使用했다.

##### 2. 調査對象

本 研究의 調査對象은 濟州道內 10個校 女高生들에게 質問紙를 配布하여 800枚중 566枚 (70.75%)를 回收하였고 이를 問項別, 要因別(人文系와 實業系 女子高等學校生과 男女共學校生, 都市地域과 邑面地域)로 分析하였으며 調査對象部門은 <表-1>과 같다.

<表-1> 調査對象部門

계 열 별		소 재 지 별		학교의 구성별	
인 문	실 업	시 지 역	읍 면 지 역	여 학 교	남 녀 공 학
311	255	239	327	283	283
계	566	계	566	계	566

#### B. 道具製作

校服自律化에 따른 女高生들이 認識 및 태도를 調査하기 위하여

- ① 校服自律化에 對한 基礎調査를 10問項
- ②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에 對한 調査를 위해 10問項
- ③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 對한 調査를 위해 10問項으로 作成하였으며 質問紙에 對한 應答方法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아주 그렇다.	그 령 다.	모 르 겠 다.	그 령 지 않 다.	아주 그렇지 않다.

이 중에서 質問者에 對한 應答이 매우 肯定일 때는 “아주 그렇다”에 肯定일때는 “그렇다”에 매우 否定일 때 “아주 그렇지 않다”에 否定일때는 “그렇지 않다”에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 C. 資料處理

回收된 資料는 問項에 따라 應答數를 百分率로 統計處理하였고, 또 變因間(人文系와 實業系, 女子高等學校生과 男女共學校生, 都市地域과 邑面地域)有意度를  $\chi^2$ 檢證을 實施하였다.



## IV. 研究의 結果 및 解釋

### A. 校服自律化에 대한 基礎調查

校服自律化에 대한 學生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調查하기 위하여 10問項으로 작성하여 調查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校服自律化에 對한 態度

校服自律化에 贊成하고 있는가를 調查한 結果는 다음 (表-2)와 같다.

〈表-2〉 校服自律化에 대한 贊反 調查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않아주 그렇지	
교복 자율화에 대해 찬성하는가?	계열별	인문계	89 28.65	99 31.8	12 3.86	77 24.76	34 9.80	311 (100)
		실업계	97 38.04	80 31.37	12 4.71	41 16.08	25 9.80	255 (100)
	소재지별	시지역	80 33.47	71 29.71	15 6.28	45 18.83	28 11.72	239 (100)
		읍면지역	116 35.47	108 33.03	9 2.75	63 19.27	31 9.48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80 28.27	89 31.45	11 3.89	72 25.44	31 10.95	283 (100)
		남녀공학	106 37.46	90 31.80	13 4.59	46 16.25	28 9.89	283 (100)

(表-2)에 의하면 “校服自律化에 贊成한다”는 내용에 계열별로 인문계가 60.45%, 실업계가 69.41%의 반응을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63.18%, 읍면지역이 68.50%의 반응을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59.72%, 남녀공학이 69.26%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이 贊成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 2. 自由服의 選擇

自律化이후 학생 스스로 衣服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調查한 結果는 다음 (表-3)과 같다.

〈表-3〉 衣服 선택시 自律性 존중에 대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의복 선택시 자율성이 존중된다고 생각한다 하는가	계열별	인문계	96 30.87	87 27.97	20 6.43	77 24.76	31 9.97	311 (100)
		실업계	88 34.51	68 26.67	29 11.37	53 20.78	17 6.67	255 (100)
의복 선택시 자율성이 존중된다고 생각한다 하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73 30.54	75 31.38	13 5.44	49 30.50	29 12.13	239 (100)
		읍면지역	111 33.94	80 24.46	36 11.01	81 24.71	19 5.81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86 30.39	80 28.27	18 6.36	70 24.73	29 10.25	283 (100)
		남녀공학	98 34.63	75 26.50	31 10.95	60 21.20	19 6.71	283 (100)

(表-3)에 依하면 “衣服 선택시 自律性이 존중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계열별로 인문계 58.84%, 실업계 61.18%,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61.92%, 읍면지역이 58.40%,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58.66%, 남녀공학이 61.13%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衣服 선택을 대체로 學生 스스로 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 3. 自由服의 選好

自律化이후 學生들이 얼마나 유명메이커를 찾고 있는가를 調査해본 結果는 다음(表-4)와 같다.

(表-4)에 依하면 “自律化이후 學生들의 옷이 대부분 유명메이커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응답한 것을 보면, 계열별로 인문계 86.85%, 실업계 74.91%,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79.92%, 읍면지역이 73.09%의 응답을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76.32%, 남녀공학이 75.62%의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다수의 學生들이 유명메이커를 찾고 있음을 알수있다.

### 4. 自由服의 着用과 自律行動

自由服 착용으로 學生들의 行動이 더 自由롭게 되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5)과 같다.

〈表-4〉 유명메이커 選好度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아주 그렇다.	② 그 렇 다.	③ 모 르 겠 다.	④ 그 렇 지 않 다.	⑤ 아 주 그 렇 지 않 다.	계 (%)
자율화 이후	계열별	인문계	64 20.54	175 66.27	30 9.65	29 9.32	13 4.18	311 (100)
친구들의 옷		실업계	63 24.71	128 50.20	20 7.84	24 9.41	20 7.84	255 (100)
이 대부분 유	소재지별	시지역	51 21.34	140 58.58	19 7.95	16 6.69	13 5.44	239 (100)
명메이커라고		읍면지역	76 23.24	163 49.85	31 9.48	37 11.31	20 6.12	327 (100)
생각하는가	학생구성별	여학교	52 18.37	164 57.95	29 10.25	26 9.19	12 4.24	283 (100)
		남녀공학	75 26.50	139 49.12	21 7.42	27 9.54	21 7.42	283 (100)

〈表-5〉 自由服 착용과 行動의 自由에 대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아주 그렇다.	② 그 렇 다.	③ 모 르 겠 다.	④ 그 렇 지 않 다.	⑤ 아 주 그 렇 지 않 다.	계 (%)
자유복 착용	계열별	인문계	63 20.26	80 25.72	48 15.43	59 18.97	61 19.61	311 (100)
		실업계	45 17.65	75 29.41	39 15.29	55 21.57	41 16.08	255 (100)
제약을 받지	소재지별	시지역	45 18.83	55 23.01	36 15.06	47 19.67	56 23.43	239 (100)
		읍면지역	63 19.27	100 30.53	51 15.60	67 20.49	46 14.07	327 (100)
않아서 좋은	학생구성별	여학교	60 21.20	71 25.18	44 15.55	51 18.02	57 20.14	283 (100)
		남녀공학	48 16.96	84 29.68	43 15.19	63 22.26	45 15.90	283 (100)

(表-5)에 의하면 “自由服 착용으로 行動의 制約을 받지 않아서 좋다”는 내용에 응답한 것을 보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45.98%, 실업계가 47.06%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1.84%, 읍면지역이 49.80%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46.38%, 남녀공학이 46.64%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반응을 계열별로 인문계가 38.58%, 실업계가 37.65%의 반응을,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3.10%, 읍면지역이 34.56%의 반응을,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38.16%, 남녀공학이 38.16%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自由服 착용이 크게 學生들의 行動을 자유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있고 또한 校服이 크게 행동의 제약을 주지 않았으므로 해석할 수 있다.

### 5. 自由服의 簡便性

自由服이 더 간편하고 활동적인가를 調査해 본 結果는 다음(表-6)과 같다.

〈表-6〉 自由服의 簡便성과 활동성에 대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 렇다.	모 르 겠다.	그 렇 지 않다.	아 주 그 렇 지 않다.	
자유복은 간 편하고 활동 적이라고 생 각 하는가	계열 별	인문계	186 59.81	73 23.43	13 4.18	29 9.32	10 3.22	311 <100>
		실업계	149 58.43	73 28.63	14 5.49	14 5.49	5 1.96	255 <100>
자유복은 간 편하고 활동 적이라고 생 각 하는가	소재 지별	시지역	138 57.74	55 23.01	11 4.60	27 11.30	8 3.35	239 <100>
		읍면지역	197 60.24	91 27.83	16 4.89	16 4.89	7 2.14	327 <100>
	학생 구성 별	여학교	173 61.13	62 21.92	12 4.24	27 9.54	9 3.18	283 <100>
		남녀공학	162 57.24	84 29.68	15 5.30	16 5.65	6 2.12	283 <100>

(表-6)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83.24%, 실업계가 87.06%의 반응을,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80.75%, 읍면지역이 88.07%의 반응을,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83.04%, 남녀공학이 86.92%의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유복 착용이 학생들의 생활을 아주 간편하고 활동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 6. 自由服의 구입

自律化이후 自由服 구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消費되고 있나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7)과 같다.

〈表-7〉 自由服 구입하는데 消費되는 시간에 대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니 않다. 그렇지 않다.	
자유복 착용 이후 옷을 구입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가	계열별	인문계	80 25.72	120 38.59	15 4.82	33 10.61	63 20.26	311 (100)
		실업계	54 21.18	98 38.48	15 5.88	32 12.55	56 21.96	255 (100)
	소재지별	시지역	55 23.01	94 39.33	10 4.18	27 11.30	53 22.18	239 (100)
		읍면지역	79 24.16	124 37.92	20 6.12	38 11.62	66 20.18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72 25.44	110 38.87	13 4.59	30 10.60	58 20.49	283 (100)
		남녀공학	62 21.91	108 38.16	17 6.01	35 12.37	61 21.55	283 (100)

(表-7)에 依하면,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64.31%, 실업계가 59.66%의 반응을, 소재지별로 보면 시지역이 62.34%, 읍면지역이 62.08%의 반응을,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64.31%, 남녀공학이 60.07%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옷을 구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7. 自由服着用과 純粹性

자유복 착용이 학생다운 순수성을 빼앗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表-8)과 같다. (表-8)에 依하면 “자유복을 착용하니 학생다운 순수성이 없는것 같다”는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 계열별로 인문계 64.96%, 실업계가 62.35%의 반응을, 소재지별로 보면 시지역이 64.43%, 읍면지역이 63.30%의 반응을,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63.60%, 남녀공학이 63.96%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자유복 착용으로 인한 옷의 복잡화로 학생다운 순수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 8. 自由服과 個性

자유복 착용이 개성있는 옷차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表-9)와 같다.

〈表-8〉 自由服의 純粹性에 대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자유복을 착용하니까 학	계열별	인문계	73 23.47	129 41.49	18 5.79	27 8.68	64 20.58	311 (100)
		실업계	67 26.27	92 36.08	20 7.84	25 9.30	51 20.00	255 (100)
생다운 순수성이 없는것	소재지별	시지역	54 22.59	100 41.84	11 4.60	26 10.88	48 20.08	239 (100)
		읍면지역	86 26.30	121 37.00	27 8.26	26 7.95	67 20.49	327 (100)
같다고 생각하는가	학생구성별	여학교	61 21.55	119 42.05	18 6.36	25 8.83	60 21.20	283 (100)
		남녀공학	79 27.92	102 36.04	20 7.07	27 9.54	55 19.43	283 (100)

〈表-9〉 自由服과 個性있는 옷차림에 對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자유복 착용으로 옷을 개성있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열별	인문계	98 31.51	101 32.48	39 12.54	42 13.50	31 9.97	311 (100)
		실업계	90 35.29	90 35.29	28 10.98	26 10.20	21 8.24	255 (100)
생각하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79 33.05	87 36.40	23 9.62	29 12.13	21 8.79	239 (100)
		읍면지역	109 33.33	104 31.80	44 13.46	39 11.93	31 9.48	327 (100)
생각하는가	학생구성별	여학교	87 30.74	95 33.57	35 12.37	39 13.78	27 9.54	283 (100)
		남녀공학	101 35.69	96 33.92	32 11.31	29 10.25	25 8.83	283 (100)

(表-9)에 의하면 “자유복 착용으로 옷을 개성있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응답한 것을 보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63.99%, 실업계가 70.38%, 소재지별로 보면 시지역이 69.45%, 읍면지역이 65.13%의 반응을,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64.31%, 남녀

공학이 69.61%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유복 착용으로 옷을 개성있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 9. 自由服과 색상

자유복의 색상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가를 조사한 결과는 (表-10)과 같다.

<表-10 > 自由服의 색상 制限에 대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자유복의 색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계열별	인문계	49 15.76	54 17.36	17 5.47	40 12.86	150 48.55	311 <100>
		실업계	49 19.22	55 21.51	24 9.41	27 10.59	100 39.22	255 <100>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30 12.55	39 16.32	18 7.53	31 12.97	121 50.63	239 <100>
		읍면지역	68 20.80	70 21.40	23 7.03	36 11.01	130 39.76	327 <100>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구성별	여학교	41 14.47	48 16.96	15 5.30	37 13.07	142 50.18	283 <100>
		남녀공학	57 20.14	61 21.55	26 9.19	30 10.60	109 38.52	283 <100>

(表-10)에 의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33.12%, 실업계가 40.73%,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28.87%, 읍면지역이 42.20%,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31.43%, 남녀공학이 41.69%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61.41%, 실업계가 49.81%,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63.60%, 읍면지역이 50.77%,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63.25%, 남녀공학이 49.12%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로 옷의 색상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 10. 學校別 校服統一

學校마다의 統一된 服裝을 입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11)과 같다.

〈表-11〉 學校마다의 統一된 服裝에 대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 렇다	모 르 겠 다	그 렇 지 않 다	아 않 다 그 렇 지	
우리 학교의 통일된 服裝 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하는가	계열 별	인문계	150 48.23	79 25.40	9 2.89	13 4.18	60 19.29	311 <100>
		실업계	102 40.00	57 22.35	13 5.10	12 4.71	71 27.84	255 <100>
	소재 지별	시지역	109 45.61	64 26.78	8 3.35	8 3.35	50 20.92	239 <100>
		읍면지역	143 43.73	72 22.02	14 4.28	17 5.20	81 24.77	327 <100>
	학생 구성 별	여학교	133 47.00	64 22.61	19 6.71	13 4.59	54 19.08	283 <100>
		남녀공학	119 42.05	62 21.91	13 4.59	12 4.24	77 27.21	283 <100>

(表-11)에 依하면 “우리 학교의 통일된 服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계열별로 인문계가 73.63%, 실업계가 62.35%, 소재지별로 보면 시지역이 72.39%, 읍면지역이 65.75%,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69.61%, 남녀공학이 63.96%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學生들이 자기 學校의 統一된 服裝을 갖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 11. 變因間 比較分析

系列別 경향에 따르면 人文系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62.54%인에 비해 반대 비율은 全體의 30.36%로 나타났으며, 實業系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63.53%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28.08%로 나타나 人文系나 實業系 學生들의 교복자율화에 대한 찬반 비율은 有意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2 參照)

學生構成別 경향에 따르면 女子高等學生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61.73%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0.71%로 나타났으며, 男女共學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63.89%로 나타났고 반대비율은 全體의 29.33%로 나타나 女子高等學校 學生이나 男女共學의 學生들도 校服自律化에 對하여 공통된 생각을 지녔으며 校服自律化의 찬반 비율의 有意度도 人文·實業系와 비슷한 분포였다. (表 13 參照)

<表-12> 校服自律化에 대한 基礎調査에서 系列別(人文系・實業系)間的 比較分析

문항	구분	내용					계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① 교화기복에 초조할한사	人文系	948 30.48	997 32.06	221 7.11	426 13.70	518 16.66	3,110 (100)
	實業系	804 31.53	816 32.00	214 8.39	309 12.12	407 15.96	2,550 (100)
계		1,752 30.95	1,813 32.03	435 7.69	735 12.99	925 16.34	5,660 (100)

$$df = 4 \quad x^2 = 6.62$$

<表-13> 校服自律化에 대한 基礎調査에서 學生構成別(女高・男女共學)間的 比較分析

문항	구분	내용					계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① 교화기복에 초조할한사	女子高等學校	845 29.86	902 31.87	214 7.56	390 13.78	479 16.93	2,830 (100)
	男女共學	907 32.05	901 31.84	231 8.16	345 12.19	446 15.76	2,830 (100)
계		1,752 30.95	1,803 31.86	445 7.86	735 12.99	725 16.34	5,660 (100)

$$df = 4 \quad x^2 = 6.78$$

地域別 경향에 따르며 市地域 學生들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62.51%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0.63%로 나타났으며, 邑面地域 學生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63.64%이고 반대비율은 全體의 28.07%로 나타나 역시 市邑面地域의 學生들도 校服自律化에 對한 찬반비율의 有意度도 都市나 邑面地域이나 모두 비등한 생각을 보인점도 특이해 男女・地域別 學生들의 校服自律化에 對한 찬반은 거의 共通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4 參照)

#### B.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인 葛藤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인 葛藤을 調査하기 위하여 10問項을 작성하여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14〉 校服自律化에 대한 基礎調査에서 地域別(市地域·邑面地域)別間의 比較分析

문항	구분	내용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① 교화기 복에 초 자대 조 울한 사	市 地 域			714 29.87	780 32.64	164 6.86	305 12.76	427 17.87	2,390 (100)
	邑 面 地 域			1,048 32.05	1,033 31.59	271 8.29	420 12.84	498 15.23	3,270 (100)
계				1,762 31.13	1,813 32.03	435 7.69	725 12.81	925 16.34	5,660 (100)

$$df = 4 \quad \chi^2 = 12.09$$

1. 自由服에 對한 父母의 干涉

부모님의 服裝에 대한 干涉으로 인한 葛藤이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15)와 같다.

〈表-15〉 自由服에 대한 부모님의 干涉으로 인한 葛藤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 렇다	모 르 겠 다	그 렇 지 않 다	아 주 그 렇 지 않 다	
부모님께서 복 장에 대한 간섭 이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계 열 별	인문계	22 7.70	118 37.94	14 4.50	56 18.01	101 32.48	311 (100)
		실업계	20 7.84	99 38.82	9 3.53	42 16.47	85 33.33	255 (100)
	소재 지별	시지역	12 5.02	89 37.24	5 2.09	47 19.67	86 35.98	239 (100)
		읍면지역	30 9.17	128 39.14	18 5.50	51 15.60	100 30.58	327 (100)
	학생 구성 별	여학교	17 6.01	106 37.46	14 4.95	54 19.08	92 32.51	283 (100)
		남녀공학	25 8.83	111 39.22	9 3.18	44 15.55	94 33.22	283 (100)

(表-15)에 依하면 “부모님께서 服裝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계열별로 인문계 45.64%, 실업계 46.66%,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2.26%, 읍면지역이 48.

31%,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43.47%, 남녀공학에 48.05%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계열별로 인문계 50.49%, 실업계가 49.80%, 소재지별 시지역이 55.65%, 읍면지역이 46.18%,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51.59%, 남녀공학이 48.77%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服裝에 대한 부모님의 干涉으로 인한 葛藤은 심하지 않다고 볼수있다.

## 2. 自身の 服裝에 對한 關心

服裝에 대한 선생님의 規制로 葛藤이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16)과 같다.

〈表-16〉 선생님의 規制로 인한 葛藤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선생님의 服裝 지도에 대한 規制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계열별	인문계	64 20.58	121 38.91	24 7.72	54 17.36	48 15.43	311 (100)
		실업계	58 22.75	106 41.57	16 6.27	43 16.86	32 12.55	255 (100)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소재지별	시지역	58 24.27	83 34.73	9 3.77	46 19.25	43 17.99	239 (100)
		읍면지역	64 19.57	144 44.04	31 9.48	51 15.60	37 11.31	327 (100)
는가	학생구성별	여학교	57 20.14	107 37.81	23 8.13	51 18.02	45 15.90	283 (100)
		남녀공학	65 22.97	120 42.40	17 6.01	46 16.25	35 12.37	283 (100)

(表-16)에 依하면 “선생님의 服裝지도에 대한 規制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계열별로 인문계 59.49%, 실업계 65.84%, 소재지별로 보면 시지역이 59.00%, 읍면지역이 63.61%,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57.95%, 남녀공학이 65.37%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로 葛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3. 自由服에 對한 教師의 干涉

자신의 옷에 대한 신경으로 인한 葛藤이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17)과 같다.

(表-17)에 依하면 “校服自律化로 옷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계열별로 인문계가 83.60%, 실업계가 85.49%,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84.94%, 읍면지역이 84.

〈表-17〉 自身の 옷차림에 대한 葛藤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아주그렇치	
교복 자율화로 옷에 많은 신	계열별	인문계	132 42.44	128 41.16	10 3.22	15 4.82	26 8.36	311 (100)
		실업계	113 44.31	105 41.18	9 3.53	9 3.53	19 7.45	255 (100)
경을 쓴다고 생각하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88 36.82	115 48.12	6 2.51	11 4.60	19 7.95	239 (100)
		읍면지역	157 48.01	118 36.09	13 3.98	13 3.98	26 7.95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116 40.99	120 42.40	9 3.18	15 5.30	23 8.13	283 (100)
		남녀공학	129 45.58	113 39.93	13 3.53	9 3.18	22 7.77	283 (100)

10%,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83.39%, 남녀공학이 85.51%의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自律化이후 옷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알수있다.

4. 自身の 服裝에 對한 劣等感

친구들의 옷차림과의 比較로 열등감을 주고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18)과 같다.

〈表-18〉 옷차림의 比較로 인한 열등감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않다	아주그렇치	
친구들에 비해 나의 옷차림이	계열별	인문계	17 5.47	97 31.19	50 16.08	38 12.22	109 35.05	311 (100)
		실업계	18 7.06	84 32.94	47 18.43	35 13.73	71 27.84	255 (100)
초라하다고 생 각하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8 3.35	73 30.54	39 16.32	30 12.55	89 37.24	239 (100)
		읍면지역	27 8.26	108 33.03	58 17.74	43 13.15	91 27.83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13 4.59	86 30.39	47 16.61	34 12.01	103 36.40	283 (100)
		남녀공학	22 7.77	95 33.57	50 17.67	39 13.78	77 27.21	283 (100)

(表-18)에 依하면 “친구들에 비해 나의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은 계열별로 인문계 36.66%, 실업계 36.29%의 반응을,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33.89%, 읍면지역이 41.29%의 반응을,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34.98%, 남녀공학이 41.34%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 계열별로 인문계가 47.27%, 실업계가 41.57%,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9.79%, 읍면지역이 40.98%의 반응을,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48.41%, 남녀공학이 40.99%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옷차림의 비교로 크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지 않음을 알수있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비슷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 5. 自由服에 對한 選好感

친구들 보다 옷을 멋있게 입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19)와 같다.

〈表-19〉 옷을 멋있게 입고 싶은 欲求 調査

조사 내용	조사 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친구들보다 옷을 멋있게 입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계열별	인문계	88 28.30	133 42.77	30 9.65	23 7.40	37 11.90	311 (100)
		실업계	80 31.37	91 35.69	21 8.24	26 10.20	37 14.51	255 (100)
각하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66 27.62	109 45.61	15 6.28	16 6.69	33 13.81	239 (100)
		읍면지역	102 31.19	115 35.17	36 11.01	33 10.09	41 12.54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78 27.56	124 43.82	27 9.54	21 7.42	33 11.66	283 (100)
		남녀공학	90 31.80	100 35.34	24 8.48	28 9.89	41 14.49	283 (100)

(表-19)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71.07%, 실업계가 67.06%의 결과를, 소재지별로 보면 시지역이 73.23%, 읍면지역이 66.36%,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71.38%, 남녀공학이 67.14%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친구들보다 옷을 멋있게 입고 싶은 欲求가 강함을 알수있다.

## 6. 自由服에 對한 父母의 選好

부모님이 선택해준 옷에 대해 滿足하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20)과 같다.

〈表-20〉 부모님이 선택해준 옷에 대한 葛藤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부모님이 선택해준 옷에 대해	계열별	인문계	22 7.07	121 38.91	22 7.07	42 13.50	104 33.44	311 (100)
		실업계	21 8.24	98 38.43	21 8.24	30 11.76	85 33.33	255 (100)
불만이 많은가	소재지별	시지역	16 6.69	88 36.82	17 7.11	30 12.55	88 36.82	239 (100)
		읍면지역	27 8.26	131 40.06	26 7.95	42 12.84	101 30.89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19 6.71	113 39.93	22 7.77	38 13.43	91 32.16	283 (100)
		남녀공학	24 8.48	106 37.46	21 7.42	34 13.01	98 34.63	283 (100)

(表-20)에 依하면 “부모님이 선택해준 옷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내용에 肯定的인 反應을 계열별로 인문계 45.98%, 실업계가 46.67%,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3.51%, 읍면지역이 48.32%,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46.64%, 남녀공학이 45.94%를 보이는 반면 否定的인 反應으로는 계열별로 인문계가 46.94%, 실업계가 45.09%, 소재지별로 보면 시지역이 49.37%, 읍면지역이 43.73%,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45.59%, 남녀공학이 47.64%의 結果를 보이고 있어 부모님이 선택해준 옷에 크게 불만이 없음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葛藤이 심하지 않다고 볼수있다.

## 7. 自由服과 友人關係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옷차림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21)과 같다.

(表-21)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45.66%, 실업계가 43.92%,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3.52%, 읍면지역이 45.87%,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45.59%, 남녀공학이 44.17%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는 반면 否定的인 反應으로는 인문계가 43.73%, 실업계가 43.93%,

〈表-21〉 모임에서의 옷차림으로 인한 葛藤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옷차림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가.	계열별	인문계	45 14.47	97 31.19	33 10.61	28 9.00	108 34.73	311 (100)
		실업계	36 14.12	76 29.80	31 12.16	26 10.20	86 33.73	255 (100)
소재지별로 시지역	소재지별	시지역	32 13.39	72 30.13	25 10.46	24 10.04	86 35.98	239 (100)
		읍면지역	49 14.98	101 30.89	39 11.93	30 9.17	108 33.03	327 (100)
학생구성별	학생구성별	여학교	41 14.49	88 31.10	32 11.31	27 9.54	95 33.57	283 (100)
		남녀공학	40 14.13	85 30.04	32 11.31	27 9.54	99 34.98	283 (100)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5.98%, 읍면지역이 42.20%,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43.11%, 남녀공학이 44.52%의 반응을 보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옷차림 때문에 크게 葛藤이 없음을 알수있다. 따라서 옷차림에서 크게 격차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 8. 自由服着用에 對한 情緒變化

의복에 따라서 기분이 명랑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22)와 같다.

(表-22)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53.05%, 실업계가 57.65%,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55.07%, 읍면지역이 54.44%,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51.01%로 남녀공학이 54.24%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옷이 心理的인 狀態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감정의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9. 活動目的과 自由化 自由服

活動目的에 맞게 옷을 입는데 葛藤이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23)과 같다.

(表-23)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84.57%, 실업계가 86.66%,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87.03%, 읍면지역이 84.41%,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84.45%, 남녀공학이 86.57%의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 活動目的에 맞게 입고 다니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自由服着用이 活動目的에 맞게 입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表-22〉 衣服에 따른 心的 狀態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 렇 다	모 르 겠 다	그 렇 지 않 다	아 주 그 렇 지 않 다	
의복에 따라 서 너의 기	계열 별	인문계	54 17.36	111 35.69	36 11.58	19 6.11	91 29.26	311 (100)
		실업계	77 30.20	70 27.45	24 9.41	13 5.10	71 27.84	255 (100)
본이 명랑해 지기도 하고	소재 지별	시지역	52 21.76	82 34.31	24 10.04	11 4.60	70 29.29	239 (100)
		읍면지역	79 24.16	99 30.28	36 11.01	21 6.42	92 28.13	327 (100)
우울해 지기 도 하는가.	학생 구성 별	여학교	47 16.61	103 36.40	35 12.37	16 5.65	82 28.92	283 (100)
		남녀공학	84 29.68	78 27.56	25 8.83	16 5.65	80 28.27	283 (100)

〈表-23〉 活動目的과 衣服行動에 대한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 렇 다	모 르 겠 다	그 렇 지 않 다	아 주 그 렇 지 않 다	
활동 목적에 알맞게 옷을	계열 별	인문계	161 51.77	102 32.80	17 5.47	20 6.43	11 3.54	311 (100)
		실업계	146 57.25	75 29.41	8 3.14	17 6.67	9 3.53	255 (100)
입는 편인가.	소재 지별	시지역	132 55.23	76 31.80	10 4.18	13 5.44	8 3.35	239 (100)
		읍면지역	175 53.52	101 30.89	15 4.59	24 7.34	12 3.67	327 (100)
	학생 구성 별	여학교	146 51.59	93 32.86	16 5.65	17 6.01	11 3.89	283 (100)
		남녀공학	161 56.89	84 29.68	9 3.18	20 7.07	9 3.18	283 (100)

## 10. 自由服과 價格

친구들의 옷과 비슷한 價格의 옷을 입고 싶은 慾求에서 생기는 葛藤이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24)와 같다.

〈表-24〉 價格과 衣服行動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 렇다	모 르 겠 다	그 렇 지 않 다	아 않 다 아 주 그 렇 지	
친구들의 옷 과 비슷한 가 격의 옷을 입 고 싶은가.	계열 별	인문계	80 25.72	91 29.26	47 15.11	23 7.40	70 22.51	311 <100>
		실업계	61 23.92	90 35.29	27 10.59	28 10.98	49 19.22	255 <100>
	소재 지별	시지역	57 23.85	70 29.29	28 11.72	20 8.37	64 26.78	239 <100>
		읍면지역	84 25.69	111 33.94	46 14.07	31 9.48	55 16.82	327 <100>
	학생 구성 별	여학교	73 25.80	79 27.92	43 15.19	21 7.42	67 23.67	283 <100>
		남녀공학	68 24.03	102 36.04	31 10.95	30 10.60	52 18.37	283 <100>

(表-24)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54.98%, 실업계가 59.21%, 소재지별로 보면 시지역이 52.14%, 읍면지역이 59.63%, 학생구성별로 보면 여학교가 53.72%, 남녀공학이 67.07%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價格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싶은 慾求가 있음을 볼수있다.

11. 變因間 比較分析

系列別 傾向에 따르면 人文系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8.01%의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表-25〉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에 대한 調査에서 系列別(人文系·實業系)間的 比較分析

문항	내용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 렇다	모 르 겠 다	그 렇 지 않 다	아 않 다 아 주 그 렇 지	
② 교에 적대 복따갈한 자른심리 울심에 화	人文系	685 22.03	1,119 35.98	284 9.10	318 10.23	705 22.67	3,110 (100)
	實業系	630 24.71	894 35.06	213 8.35	269 10.55	544 21.33	2,550 (100)
계		1,315 23.23	2,013 35.57	496 8.76	587 10.37	1,249 22.07	5,660 (100)

$df = 4 \quad \chi^2 = 6.82$

32.90%로 나타났으며, 實業系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9.77%인에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1.88%로 나타나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에 있어, 찬성은 有意도가 약간 상승하고 따라서 반대로 有意도가 약간 상승하여 校服自律化에 心理的 葛藤이 높다고 나타났다. (表-25 參照)

學生構成別 경향에 따르면 女子高等學生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7.46%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3.08%로 나타났으며, 男女共學 學生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60.14%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1.80%로 나타나 女子高等學校 學生이나 男女共學 學生이나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의 찬·반 有意도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26 參照)

〈表-26〉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에 대한 調査에서 學生構成別(女高·男女共學)間的 比較分析

문항	구분	조사내용					계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않주 그렇지	
② 교복에 따른 자율화 적대감 대조심	女子高等學校	607 21.45	1,019 36.01	268 9.47	294 10.39	642 22.69	2,830 (100)
	男女共學	708 25.02	994 35.12	228 8.06	293 10.35	607 21.45	2,830 (100)
계		1,315 2,323	2,013 35.37	496 8.76	587 10.37	1,249 22.07	5,660 (100)

$$df = 4 \quad x^2 = 12.28$$

〈表-27〉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에 대한 調査에서 地域別(市地域·邑面地域) 別間的 比較分析

문항	구분	조사내용					계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않주 그렇지	
② 교복에 따른 자율화 적대감 대조심	市地域	521 21.80	857 35.86	178 7.45	248 10.38	586 24.52	2,390 (100)
	邑面地域	794 24.28	1,156 35.32	318 9.72	339 10.37	663 20.28	3,270 (100)
계		1,315 23.23	2,013 35.57	496 8.76	587 10.37	1,249 22.07	5,660 (100)

$$df = 4 \quad x^2 = 23.21$$

地域別 경향에 따르면 市地域 學生들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7.66%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4.9%로 나타났으며, 邑面地域 學生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9.6%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0.65%로 나타나 市地域 學生이나 邑面地域 學生이나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의 찬·반 有意度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27 參照)

### C.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

校服自律化에 따른 衣服行動을 고찰해 봄으로써 여고생들이 어떠한 自我概念을 갖고 있는가를 調査해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衣服行動과 個性表現

衣服行動에 있어서 自身の 個性을 얼마나 積極的으로 表現하고 있는가를 調査해 본 結果는 다음 (表-28)와 같다.

〈表-28〉 個性表現과 衣服行動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않주 그렇다	
옷을 입을때 최대한으로 개	계열별	인문계	72 23.15	122 39.23	58 18.65	32 10.29	27 8.69	311 (100)
		실업계	53 20.78	110 43.14	52 20.39	20 7.84	20 7.84	255 (100)
성을 표현하는 가.	소재 지별	시지역	58 22.18	99 41.42	41 17.15	19 7.95	22 9.21	239 (100)
		읍면지역	67 20.49	133 40.67	69 21.10	33 10.09	25 7.65	327 (100)
	학생구성 별	여학교	66 23.32	113 39.93	51 18.02	29 10.25	24 8.48	283 (100)
		남녀공학	59 20.85	119 42.05	59 20.85	23 8.13	23 8.13	283 (100)

(表-28)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62.38%, 실업계가 63.92%,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63.60%, 읍면지역이 61.16%,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63.25, 남녀공학이 62.90%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衣服에 積極的으로 自己表現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自己 個性表現 하는데 衣服이 중요한 手段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自由服에 對한 他人의 評價

다른 사람들의 評價에서도 自身の 옷차림에 대해 自身感을 갖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29)와 같다.

〈表-29〉 他人의 評價와 衣服行動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 주 그 렇 다	그 렇 다	모 르 겠 다	그 렇 지 않 다	아 않 주 그 렇 지	
다른 사람들 이 나의 옷차 림에 대해서 총계 평가하 고 있다고 생 각하는가.	계열 별	인문계	55 17.68	90 28.94	139 44.69	20 6.43	7 2.25	311 (100)
		실업계	52 20.39	74 29.02	113 44.31	8 3.14	8 3.14	255 (100)
	소재 지별	시지역	47 19.67	69 28.87	103 43.10	16 6.69	4 1.67	239 (100)
		읍면지역	60 18.35	95 29.07	149 45.51	12 3.67	11 3.36	327 (100)
	학생 구성 별	여학교	51 18.02	82 28.98	124 43.82	20 7.07	6 2.12	283 (100)
		남녀공학	56 19.79	82 28.98	128 45.23	8 2.83	9 3.18	283 (100)

(表-29)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46.62%, 실업계가 49.41%,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8.54%, 읍면지역이 47.42%,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47.00%, 남녀공학이 48.77%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지않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自己 身體像에 대한 他人의 評價에 대해서도 自身感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流行服에 對한 自我意識

衣服使用에 있어서 최신 유행에 맞게 입고 싶은 慾求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 -30)과 같다.

〈表-30〉 流行과 衣服行動 調査

조사 내용	조사 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최신 유행 감각에 맞	계열별	인문계	52 16.72	123 39.55	16 5.14	40 12.86	80 25.72	311 (100)
		실업계	42 16.47	95 37.25	17 6.67	34 13.33	67 26.27	255 (100)
제 입고 싶은가	소재지별	시지역	38 15.90	85 35.56	14 5.86	39 16.32	63 26.36	239 (100)
		읍면지역	56 17.13	133 40.67	19 5.81	35 10.70	84 25.69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48 16.96	110 38.87	16 5.65	38 13.43	71 25.09	283 (100)
		남녀공학	46 16.25	108 38.16	17 6.01	36 12.72	76 26.86	283 (100)

(表-30)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56.27%, 실업계가 53.72%,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51.46%, 읍면지역이 57.80%,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55.83%, 남녀공학이 54.41%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체로 유행감각에 맞게 衣服을 입고싶은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衣服行動에 있어서 流行에 대한 의존성이 있으며 아울러 유행이 심리적인 안정성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4. 自身の自由服에 對한 滿足感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때 스스로 자신이 만족해 하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31)과 같다.

(表-31)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91.00%, 실업계가 93.72%,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94.73%, 읍면지역이 91.14%,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90.46%, 남녀공학이 93.99%의 아주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만족을 주는데 衣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따라서 보통 衣服을 입은 상태로 身體像을 보므로 衣服이 긍정적인 身體像을 주는데, 自我에 대해 肯定的인 느낌을 갖게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表-31〉 満足感과 衣服行動 調査

조사 내용	조사 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내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 때만	계열별	인문계	213 68.49	70 22.51	3 0.96	7 2.25	18 5.79	311 <100>
		실업계	182 71.37	57 22.35	6 2.35	7 2.75	3 1.18	255 <100>
족감을 느끼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165 69.04	59 24.69	1 0.40	4 1.67	10 4.18	239 <100>
		읍면지역	230 70.34	68 20.80	8 2.45	10 3.06	11 3.36	327 <100>
끼는가	학생구별	여학교	191 67.49	65 22.97	3 1.06	7 2.47	17 6.01	283 <100>
		남녀공학	204 72.08	62 21.91	6 2.12	7 2.47	4 1.41	283 <100>

5. 自身の 自由服에 對한 異性の 評價

異性으로부터의 호감을 얻는데 衣服이 얼마나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衣服으로 인하여 異性앞에서 自己尊重感を 높여주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32)과 같다.

〈表-32〉 異性에 대한 好感과 衣服行動 調査

조사 내용	조사 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옷을 잘 입을 때만	계열별	인문계	17 5.47	40 12.86	160 51.45	19 6.11	75 24.12	311 <100>
		실업계	11 4.31	29 11.37	113 44.31	28 10.98	74 29.02	255 <100>
생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17 7.11	37 15.48	117 48.95	18 7.53	50 20.92	239 <100>
		읍면지역	11 3.36	32 9.79	156 47.71	29 8.87	99 8.87	327 <100>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구별	여학교	16 5.65	37 13.07	151 53.30	17 6.01	62 21.91	283 <100>
		남녀공학	12 4.24	32 11.32	122 43.11	30 10.60	87 30.74	283 <100>

(表-32)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18.33%, 실업계가 15.68%,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22.59%, 읍면지역이 13.15%,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18.72%, 남녀공학이 15.56%의 아주 낮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異性앞에서 衣服이 自己尊重感을 주는 좋은 手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수있다.

### 6. 自由服에 對한 親友의 態度

自身の 衣服行動에 대한 평가로 交友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33)과 같다.

〈表-33〉 交友관계와 衣服行動 調査

조사 내용	조사 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가 좋은가	계열별	인문계	28 9.00	54 17.36	61 19.61	42 13.50	126 40.51	311 <100>
		실업계	42 16.47	49 19.22	58 22.75	39 15.29	67 26.27	255 <100>
	소재지별	시지역	24 10.04	45 18.83	45 18.83	31 12.97	94 39.33	239 <100>
		읍면지역	46 14.07	58 17.74	74 22.63	50 15.29	99 30.28	327 <100>
	학생구성별	여학교	25 8.83	49 17.31	57 20.14	36 12.72	116 40.99	283 <100>
		남녀공학	45 15.90	54 19.08	62 21.91	45 15.90	77 27.21	283 <100>

(表-33)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26.36%, 실업계가 35.69%,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28.87%, 읍면지역이 31.81%,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26.14%, 남녀공학이 34.98%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계열별로 인문계가 54.01%, 실업계가 41.56%,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52.30%, 읍면지역이 45.57%, 학생구성별로 여학교 53.71%, 남녀공학이 43.11%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自己의 衣服行動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는 친구를 좋아하는 경향은 적다고 볼수있다.

## 7. 自由服과 學生活動

衣服行動이 수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34)와 같다.

〈表-34〉 學習活動과 衣服行動 調査

조사 내용	조사 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않다	
학습 활동을 할 때	계열별	인문계	30 9.65	79 25.40	40 12.86	28 9.00	134 43.09	311 (100)
		실업계	23 9.02	56 21.96	36 14.12	34 13.33	106 41.57	255 (100)
잘 입을면 자신감이 생기는가	소재지별	시지역	15 6.28	57 23.85	31 12.97	24 10.04	112 46.86	239 (100)
		읍면지역	38 11.62	78 23.85	45 13.76	38 11.62	128 39.14	327 (100)
기는가	학생구성별	여학교	28 9.89	71 25.09	39 13.78	25 8.83	120 42.40	283 (100)
		남녀공학	25 8.83	64 22.61	37 13.07	37 13.07	120 42.40	283 (100)

(表-34)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35.05%, 실업계가 30.98%,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30.13%, 읍면지역이 35.47%,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34.98%, 남녀공학이 31.44%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계열별로 인문계가 52.09%, 실업계가 54.90%,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51.23%, 남녀공학이 55.47%의 결과는 보이고 있어 衣服活動이 학습 활동할 때 自信心을 주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생활 수준이 비슷해 衣服行動에 심한 격차가 없으므로 해석할 수도 있다.

## 8. 身體像과 自由服

自身の 身體像에 맞게 衣服行動을 취하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表-35)와 같다.

(表-35)에 依하면 계열별로 인문계가 79.10%, 실업계가 84.32%,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79.50%, 읍면지역이 82.87%,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78.45%, 남녀공학이 75.01%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얼굴과 체형에 맞는 衣服을 입을려는 경향이 있으며 衣服行動을 통해 최대한으로 自己表現을 하고 싶은 欲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學生

〈表-34〉 身體像과 衣服行動 調査

조사 내용	조사 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내 얼굴과 체 형에 맞는	계열별	인문계	85 27.33	161 51.77	9 2.89	28 9.00	28 9.00	311 (100)
		실업계	96 37.65	119 46.67	13 5.10	11 4.31	16 6.27	255 (100)
디자인을 생 각하고 입 는 편인가	소재 지별	시지역	58 24.27	132 55.23	9 3.77	18 7.53	22 9.21	239 (100)
		읍면지역	123 37.61	148 45.26	13 3.98	21 6.42	22 6.73	327 (100)
	학생 구성 별	여학교	73 25.80	149 52.65	7 2.47	27 9.54	27 9.54	283 (100)
		남녀공학	120 42.40	64 32.61	37 13.07	37 13.07	25 8.83	283 (100)

스스로가 自己의 身體像을 尊重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9. 自由服과 禮節



예의성과 衣服行動 對해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36)과 같다.

〈表-36〉 예의성과 衣服行動 調査

조사 내용	조사 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예의상 좋 아하지 않 는 옷을 입 고 다니는 가	계열별	인문계	55 17.68	91 29.26	30 9.65	45 14.47	90 28.94	311 (100)
		실업계	47 18.43	70 27.45	31 12.16	41 16.08	66 25.88	255 (100)
	소재 지별	시지역	40 16.74	79 33.05	19 7.95	29 13.13	72 30.13	239 (100)
		읍면지역	62 18.96	82 25.08	42 12.84	57 17.43	84 25.69	327 (100)
	학생 구성 별	여학교	48 16.96	84 29.68	27 9.54	41 14.49	83 29.33	283 (100)
		남녀공학	54 19.08	77 27.21	34 12.01	45 15.90	73 25.80	283 (100)

(表-36)에 依하면 “예의상 좋아하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에 긍정적인 반응은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 46.94%, 실업계가 45.88%,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9.79%, 읍면지역이 44.04%,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46.64%, 남녀공학이 46.29%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계열별로 인문계가 43.41%, 실업계가 41.96%,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3.36%, 읍면지역이 43.12%,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43.82%, 남녀공학이 41.70%의 결과로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예의성이 衣服行動에 많은 영향을 주지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타인의 평가보다 自身の 독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10. 自由服에 對한 父母의 評價

부모님이 선택해준 衣服에 대한 태도와 自我概念에 의해서 調査한 結果는 다음 (表-37)과 같다.

〈表-37〉 부모님의 評價와 衣服行動 調査

조사내용	조사대상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않 그렇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계열별	인문계	52 16.72	100 32.15	35 11.25	58 18.65	66 21.22	311 (100)
		실업계	64 25.10	76 29.80	33 12.94	35 13.73	47 18.43	255 (100)
부모님이 구입해준 옷을 입고 다니는	소재지별	시지역	42 17.57	63 26.36	31 12.97	40 16.74	63 26.36	239 (100)
		읍면지역	74 22.63	113 34.56	37 11.31	53 16.21	50 15.29	327 (100)
가	학생구성별	여학교	46 16.25	87 30.74	32 11.31	55 19.43	63 22.26	283 (100)
		남녀학교	70 24.73	89 31.45	36 12.72	38 13.43	50 17.67	283 (100)

(表-37)에 依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부모님이 구입해준 옷을 입고 다닌다”는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계열별로 인문계가 48.87%, 실업계가 54.90%, 소재지별로 시지역이 43.93%, 읍면지역이 57.19%, 학생구성별로 여학교가 46.99%, 남녀공학이 56.16%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自身の 衣服行動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님의 評價는 어느정도 知覺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 11. 變因間 比較分析

系列別 경향에 따르면 人文系의 찬성비율은 全體 51.09%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1.19%로 나타났으며, 實業系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1.88%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28.67%로 나타나 自我概念에 대한 校服自律化에 있어서 찬성은 有意도가 약간 낮고 반대는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表-38 參照)

〈表-38〉 衣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 대한 調查에서 系列別(人文·實業系)간의 比較分析

문항	구분	내용					계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않주 그렇치	
③ 교에개조 복따념에 자른에 울자대 화아한사	人文系	659 21.19	930 29.90	551 17.72	319 10.26	651 20.93	3,110 (100)
	實業系	612 24.00	735 28.82	472 18.51	257 10.08	474 18.59	2,550 (100)
계		1,271 22.46	1,665 29.42	1,023 18.07	576 10.18	1,125 19.88	5,660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df = 4 \quad x^2 = 9.90$

學生構成別 경향에 따르면 女子高等學生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0.85%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20.63%로 나타났으며, 男女共學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2.89%로 나타났고 반대비율은 全體의 28.87%로 나타나 女子高等學生이나 男女共學의 學生들도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서는 찬성 有意도는 약간 낮고 반대는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表-39 參照)

〈表-39〉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 대한 調查에서 學生構成別(女高·男女共學)간의 比較分析

문항	구분	내용					계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모르겠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않주 그렇치	
③ 교에개조 복따념에 자른에 울자대 화아한사	女子高等學校	592 20.92	847 29.93	507 17.92	295 10.42	589 10.21	2,830 (100)
	男女共學	679 23.99	818 28.90	516 18.23	281 9.93	536 18.94	2,830 (100)
계		1,271 22.46	1,665 29.42	1,023 18.07	576 10.18	1,125 19.88	5,660 (100)

$df = 4 \quad x^2 = 9.38$

地域別 경향에 따르면 市地域 學生들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1.42%인데 비해 반대비율은 全體의 31.38%로 나타났으며 邑面地域 學生의 찬성비율은 全體의 52.21%이고 반대비율은 全體의 29.09%로 나타나 市·邑面地域의 學生들도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서는 찬성 有意度가 약간 낮고 반대 비율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表-40 參照)

〈表-40〉 校服自律化에 따른 自我概念에 대한 調査에서 地域別(市地域·邑面地域)別 間의 比較分析

문항	내용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다	
③ 교복개조 따뜻함에 자율화 자대 화한사	市地域	504 21.09	725 30.33	411 17.20	238 9.96	512 21.42	2,390 (100)
	邑面地域	767 23.46	940 28.75	612 18.72	338 10.34	613 18.75	3,270 (100)
계		1,271 22.46	1,665 29.42	1,023 18.07	576 10.18	1,125 19.88	5,660 (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f = 4 \quad x^2 = 11.55$$

##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目的은 校服의 自律化에 따른 女高生의 心理的 葛藤과 自我概念에 미치는 影響을 究明하는데 具體的인 研究內容으로는,

- ① 校服自律化에 대한 女高生의 態度, ②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要因, ③ ③ 校服自律化가 自我概念에 미치는 影響등의 問題를 量的인 側面에서 分析 檢討 하였 다.

上記의 目的과 內容을 究明히 하기 위하여 濟州道內 女子高等學校 10個校 학생 566명을 對象으로 質問紙法에 依하여 資料를 蒐集分析 하였다.

蒐集된 資料는 계열별, 지역별, 학생구성별로 분류해서 百分率 및  $\chi^2$  검증으로 처리해 본 結果 새로 發見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1. 校服 自律化에 對한 女高生의 態度

- ① 校服自律化에 대해서는 大部分의 學生들이 贊成(人文系：60.5%, 實業系：69.4%) 하고 있는 傾向이다.
- ② 衣服의 選擇은 學生들의 自由性이 尊重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人文系：58.9%, 實業系：61%)
- ③ 自由服은 大部分이 有名 maker制(人文系：87%, 實業系：75%)로 나타났다.
- ④ 自由服의 着用으로 因한 行動의 制約은 받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人文系：54%, 實業系：53%)
- ⑤ 自由服이 簡便하고 活動的인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人文系：83%, 實業系：87%)
- ⑥ 自由服着用후 옷의 복잡화로 學生의 순수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人文系：65%, 實業系：62%)
- ⑦ 自由服은 個性美를 나타낼 수 있어서 바람직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人文系：64%, 實業系：70%)
- ⑧ 自由服의 色상은 制限할 必要가 없는 傾向임을 알 수 있다. (人文系：67%, 實業系 59%)
- ⑨ 自己學校의 統一된 복장을 願하고 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人文系：74%, 實業系：62%)

### 2. 校服自律化에 따른 心理的 葛藤

- ① 自由服 着用에 對한 父母의 干涉으로 因한 葛藤은 比較的 甚하지 않은 傾向이다.  
(人文:46%, 實業:47%)
- ② 自由服에 對한 教師의 干涉으로 因한 葛藤(人文:59%, 實業:66%)은 여전히 存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③ 自由服에 對한 自己自身에 對한 關心은 강한 傾向으로 나타났다.  
(人文:84%, 實業:86%)
- ④ 自身の 自由服으로 因한 劣等意識은 크게 問題視 할 必要가 없음을 엿볼 수 있다.  
(劣等率, 人文:37%, 實業:36%)
- ⑤ 自由服에 對한 親友間의 競争意識(人文:71%, 實業:67%)이 甚하다고 할 수 있다.
- ⑥ 自由服의 選定은 父母에 依賴하는 傾向(人文:46%, 實業:47%)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 ⑦ 親友들과의 社交時, 自由服으로 因한 劣等感(人文:46%, 實業:44%)은 比較的 微弱的한 편임을 알 수 있다.
- ⑧ 自由服의 變化에 따라 情緒의 變化(人文:53%, 實業:58%)가 相互相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⑨ 大部分의 學生들은 自由服은 活動目的에 따라 알맞은 복장을 하고 있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人文:85%, 實業:86%)
- ⑩ 自由服은 價格面에서도 親友들과 競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人文:55%, 實業:59%)

### 3. 校服自律化가 自我概念에 미치는 影響

- ① 自由服 着用으로 自我를 表現하려는 傾向(人文:63%, 實業:64%)이 농후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自由服에 對한 他人의 好感(人文:47%, 實業:50%)은 贊反이 비슷한 傾向임을 알 수 있다.
- ③ 自由服은 流行에 따라 着用하고 싶은 傾向(人文:56%, 實業:54%)임을 엿볼 수 있다.
- ④ 大部分의 學生들은 自己自身の 마음에 맞는 自由服을 願하고 있다. (人文:91%, 實業:94%)
- ⑤ 自由服 着用으로 因한 異性으로 부터의 好感(人文:18%, 實業:16%)은 極히 나쁜 傾向으로 나타났다.

(6) 大部分의 學生들이 學習活動時 自由服에 注意(人文:26%, 實業:36%)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7) 自由服 着用으로 인한 親友의 態度도 極히 否定的으로 나타났다.  
(有關心 反應:人文 26%, 實業 36%)

(8) 大部分의 學生들은 自己自身の 용모, 體形 등 身體像에 맞추어 복장을 하고 있는 傾向으로 나타났다. (人文:79%, 實業:84%)

(9) 自由服은 禮儀와 關係없이 着用(人文:47%, 實業:46%)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 個性이 뚜렷함을 엿볼 수 있다.

(10) 自由服의 着用에 對한 父母님의 評價는 贊反 비슷한 傾向으로 나타났다.  
(父母가 사준 옷이기에 입을다가, 人文:49%, 實業:55%)

이상의 結果로 볼때 濟州道內 女高生들은 校服自律化를 수용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으며 衣服行動에 있어서 他人의 評價보다 自身の 獨自的인 自我意識을 가지고 있으며 衣服이 肯定的인 自我概念은 주는데 좋은 手段이 되고 있으며 感情變化의 要諦이 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姜昌赫. “大學生의 心理, 社會的 態度에 관한 研究”, 濟州大論文集, 14輯, 1982.
- 姜惠遠. “大學生의 個性과 流行을 中心으로 한 衣服行爲의 性格特性과의 關係”, 延世論叢11輯, 1974.
- 金龍來. “學業成就度와 自我概念의 相關性 研究”, 弘益大論叢 7輯, 1975.
- 金斗憲. 「價值論」, 서울: 博英社, 1975.
-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價值觀」, 서울: 一湖閣, 1969.
- 金在恩. 「統計的 方法」, 서울: 益文社, 1978.
- 金豪權. “自我概念의 變化에 관한 의사 中斷적 研究”, 서울: 行動科學研究所, 1979.
- 金炳聲. 「自律化와 學生指導」,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第 4 卷 5 號.
- 金明圭. 「新憲法學 要論」, 서울: 博英社, 1981.
- 김영인. “女子中·高等學校 學生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고영정. 「現代社會心理學」, 서울: 法文社, 1973.
- 나병술. 「心理學」, 서울: 大覺出版社, 1981.
- 閔宗順. 「發達心理學」, 서울: 教育出版社, 1979.
- 朴容憲. 「態도와 價值觀의 本質」, 서울: 培英社, 1971.
- 朴贊富. “의상행태와 欲求와의 關係연구”, 서울: 仁荷大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 6 輯, 1980.
- 申貴姬. “價值觀과 의상흥미와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74.
- 辛玉順. “自我正體感과 外貌를 통한 自我概念 및 個性에 관한 衣服心理學的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第 2 卷 2 號, 1978.
- 林成夫. “集中的 小集團訓練이 自我概念 및 自我實現性”, 忠北大論文集 26輯, 1983.
- 류송옥. 「복식 의상학」, 서울: 수학사, 1975.
- 劉寬順. “性格特性和 의상흥미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內 女高生을 中心으로 韓國衣類學會誌 第 8 卷 2 號, 1984.
- 안창일. “自律化時代, 中高生의 校外生活과 異性校祭”, 第 8 回 靑少年 심포지움 서울: YMCA, 1982.

- 安商元, 「教育原理」, 서울 : 崇義社, 1969.
- 李鍾昇, “自我概念의 變化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1970.
- 李明姬, “衣服行動과 關聯된 心理的 變因研究”, 梨花大學校.
- 李仁子, 「服飾社會心理學」, 서울 : 修學社, 1986.
- , “의상흥미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건국大學校 生活文化 研究所 연구보고집, 1980.
- 李奎浩, 「教育和 思想」, 서울 : 培英社, 1977.
- 鄭之植, 「自我概念 檢證 檢證法요강」, 서울 : 培英社, 1968.
- 장병림, 「一般心理學」, 서울 : 法文社, 1973.
- 정양은, 「一般心理學」, 서울 : 法文社, 1973.
- 최혜선, “衣服行動과 社會的 안정감, 불안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 韓明希, “教育的 自律化方向”, 서울 : 새교육 通卷305號, 1980.
- Anspach, K., The why of Fashion : Iowa State Press, 1967, pp. 147~149.
- A. M. Creekmore,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p. 10.
- Brookover, W. B., Thomas, S., (Paterson ; A,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1964, 37).
- Benson, C. A., Clothing conformity Attitudes as They relate to level of Self-Esteem among Adolescent Girls : unpub, Thesis M. S. : Univ., of Tennessee, 1971.
- Burger, G. D.,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as They Relate to Clothing Attitudes : A Comparison of Freshman and Junior College Woman, Unpub. Thesis, M. S. univ., of Tennessee, p. 1976.
- B. King. A Study of the role of Clothing in Family Relationships in 25 Selected Families.
- B. Smucker and A. M. Creekmore,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 J. of Home Eco., Vol. 1, No.2, 1972.
- Conb, A. W., & Snygg, D.,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9.
- Craig, H. T., Clothing-A Comprehensive Study, New York : J. B. Lippincott Co., 1973.

- Collins, C., Effects of a Self-Improvement Course on Self-Concepts of Adolescent Female Clients, *J. of Psychology*, Vol. 80, 87, 1972.
- Creekmore, A. M. Clothing and Personal Attractiveness related to Conformity to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Leadership Potement, *H. E. R. J.* Vol. 8, No. 3, 1980.
- Caral Jung, *Psychological Type*, London : Keganpaul, Trubner and Co., 1923.
- Drake, M. F., and Ford, I. 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 E. R. J.* Vol. 7, No. 5, 1979.
- Disipio, W. J., Trudeau, P. F., Sympton Changers And Self-Esteem as Correlates of Positive Conditioning of Grooming in Hospitalized Psycholics, *t. of Abnormal Psychology* Vol. 80, No. 3, 1972.
- Erik, H. Erikson, *Studies of play*, New York : Arno Press, 1976.
- Eysenck, H. J. W. Arnold., Meili, R., *Encyclopedia of Psychology*, London : Search, 1972.
- Felker, D. W. *Building Positive Self-Concept*,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4.
- Ford, I. M. and Drake, M. F.,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 A comparison of two Growps, *H. E. R. J.* Vol. 11, No. 2, 1982.
- Garrison, Karl, C.,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5.
- G. W. Allport, *Personality &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 Y : Holt. 1937.
- Hall, C. S., and Gardner Linzey,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70.
- Hambleton, K. B., Roach, M. E., and Ehle, K., *Teenge Appearance : Conformity, Preference, and Self-Concept*, *J. of H. E.*, Vol. 64, No. 2, 1972.
- Horn, M. J., and Gurel, L. 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g, 1981.
- Humphrey, C., Klaason, M. and Crrekmore, A. M.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 of H. E.* Vol. 63, No. 4, 1971.
- Harry, S. Broudy, *Building a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 Prentice - Hall Inc , 1961 3rd Edition, 1976 .
- J. Hamiton and J. Warden, *The Student's Role in a High School Community and his*

- Clothing behavior, J. of Home Economics Vol. 58, No. 10, 1966.
- Felker, D. W., & Stanwyck, D. J., General Self-Concept and Specific Self-evaluations after an academic task, Psychological Reports, 1971.
- Latzke, A, and H. P. Hostetter, The wide world of Clothing N. Yi The Ronald Press, 1968.
- Lapitsky,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ng 를 인용한 Laubach, 1972.
- L. S. Holling worth, The Psychology of Adolescent, N. Yi Appleton-Century-Crofts, Inc., 1928.
- L. H. Pearson, Teenager's Preference in Clothes, J. of Home EC, 1950.
- 64 Mejmsey, H. T.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5.
- Moganosky, M. and A. M. Creekmore, Clothing influence in Adolescent Leadership Rol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9, No. 4, 1981.
- Miller, F. G., Davis, L. L., Rowold K. L., Public Self-Consiou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 ward the use of Clothing, H. E. R. J., Vol. 10, No. 4, 1982.
- O'Bannion, T., & O'Connell, A., The Shared Journey, An introduction to encounte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0.
- Purkey, W. W.,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0.
- Rosencranz, Mary, L., A Study of Women's interest in Clothing Jural of Home Economics, 1949.
- Ryan, M. S., Clothing : Astudy in Haman Behavir, New York : Renehart and Winston, Inc., 2, 1966.
- Rogers, Carl 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51.
- Roach, M. E. Eicher, J. B., Dress, Adornment, and, New York : Jhon wiley & Sons, Inc., 76, 1965.
- R. G. Kahlen, The Psychology of Adolescent ovelopment, N. Y : Harper & Row Publishers, 1952.
- Symonds, P. M., The ego and the Self,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1951.

- S. H. Kuehne and A. M. Creekmore, Relationships Among Social Class, School Position, and Clothing of Adolescents, J. of H. E. Vol. 63, No. 7, 1971.
- Taylor, L. G. and Compton, N. H. Personality Correlates Press Conformity J. of H. E. vol. 60, No. 8, 1968.
- V. L. Block ; Conflicts of Adolescents with Their Mothers, J. of Abn, Psychol, 32, 1937.
- Whlie, R. C., The Self-Concept, A Critical Survey of Pertinent research literatur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1.
- William, M. C. and Eicher, J. B. Teen -Ager's Appearance and Social Acceptance. J. of H. E., Vol. 58, No. 6, 1966.
- 藤原康晴, 女子大生の被服の関心度と自尊感情との関係, 日本：家庭學雜誌, Vol. 33, No. 10昭和 57年.



## 질 문 지

본조사는 여고생들의 교복자율화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자아개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답 하나를 골라 V 표 하여 주십시오  
이 조사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본연구에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성의있는 응답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행정전공 강 승 자

##### A.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1. 학 교: ① 계열별: 인문계 ( ), 실업계 ( )  
② 학교의 학생구성별: 여자고등학교 ( )  
남녀공학교 ( )  
③ 학교 소재지별: 시지역 ( ), 읍면지역 ( )
2. 부모의 교육정도  
① 부: 국졸 ( ), 중졸 ( ), 고졸 ( ), 대졸 ( ), 대학원 ( )  
② 모: 국졸 ( ), 중졸 ( ), 고졸 ( ), 대졸 ( ), 대학원 ( )
3. 부모의 직업  
① 부: 공무원 ( ), 회사원 ( ), 상업 ( ), 농업 ( )  
무직 ( ), 기타 ( )  
② 모: 공무원 ( ), 회사원 ( ), 상업 ( ), 농업 ( )  
주부 ( ), 기타 ( )
4. 가정의 월수입 ( \_\_\_\_\_ 에 금액을 기입하세요 )  
평균적으로 월 \_\_\_\_\_ 만원 정도

구 호	문 항 번 호	조 사 내 용	① 아 주 그 렇 다	② 그 렇 다	③ 모 르 겠 다	④ 그 렇 지 않 다	⑤ 아 주 그 렇 지 않 다	계 (%)
B. 교 복 자 율 화 에 대 한 기 초 조 사	1.	교복자율화에 대하여 찬성 하는 가?						(100)
	2.	의복선택시 자율성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가?						(100)
	3.	자율화이후 친구들의 옷이 대부 분 유명 메이커라고 생각하는가?						(100)
	4.	자유복 착용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좋은가?						(100)
	5.	자유복은 간편하고 활동적이라고 생각 하는가?						(100)
	6.	자유복 착용이후 옷을 구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고 생 각하는가?						(100)
	7.	자유복을 착용하니까 학생다운 순 수성이 없는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100)
	8.	자유복 착용으로 옷을 개성있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00)
	9.	자유복의 색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100)
	10.	우리 학교의 통일된 복장이 있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100)
		계						(100)

구 분	문항 번호	조 사 내 용	① 아주 그렇 다	② 그 렇 다	③ 모 르 겠 다	④ 그 렇 지 않 다	⑤ 아 주 그 렇 지 않 다	계 (%)
C. 교복 자율화 에 따른 심리적 갈등 에 대한 조사	11.	부모님들이 복장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100>
	12.	선생님들의 복장지도에 대한 규제는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100>
	13.	자율화로 옷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는가?						<100>
	14.	나는 나의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가?						<100>
	15.	나는 친구들에 비해 멋있게 옷을 입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100>
	16.	부모님이 선택한 옷에 대해 불만이 많은가?						<100>
	17.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옷차림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가?						<100>
	18.	의복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명랑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가?						<100>
	19.	활동목적에 알맞게 옷을 입는 편인가?						<100>
	20.	친구들의 옷과 비슷한 가격의 옷을 입고 싶은가?						<100>
		계						

구 분	구분 항목 번호	조 사 내 용	① 아 주 그 렇 다	② 그 렇 다	③ 모 르 겠 다	④ 그 렇 지 않 다	⑤ 아 않 다 아 주 그 렇 지	계 (%)
D. 교복 자 율 화 에 따 른 자 아 개 념 에 대 한 조 사	21.	옷을 입을때 최대한으로 개성을 표현하는가?						(100)
	22.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옷차림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00)
	23.	나는 되도록 최신 유행감각에 맞도록 입고 싶은가?						(100)
	24.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가?						(100)
	25.	옷을 잘 입으면 남학생으로 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00)
	26.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가 좋은가?						(100)
	27.	학습활동을 할 때 옷을 잘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는가?						(100)
	28.	내 얼굴과 체형에 맞는 디자인을 생각하고 입는 편인가?						(100)
	29.	예의상 좋아하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가?						(100)
	30.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부모님이 구입해준 옷을 입고 다니는가?						(100)
	계						(100)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a high school girls according to the sutonomy of school uniform.

**Kang Seung-Ja**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Chang-Hyeock***

#### 1. The pupose of this Stud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influence on psychological conflict in the girl students who experience the autonomy of school uniform.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in details are as follows :

#### 2. This Study contents :

- ① Girl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autonomy of school uniform.
- ② The factors of psychological conflict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sutonomy of school uniform.
- ③ The Influence of Autonomy of School Uniform on Self - Conception

#### 3. Conclusion :

To Study the aim and contents described above, this research collected and analyzed with questionire method, the material from 566 girls of 10 High School in Cheju-do. The collected material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region, major and student composition, and dealt with percentage and  $X^2$  proof. The newly-born results are as follows :

- 1) The attitude of a high school girls for the sutonomy of school uniform.
  - a. The most of students agreed on the autonomy of school uniform. (Liberal School : 60.6%, Vocational School : 69.4%)

- b. The choice of dress has a tendency to respect the autonomy of students.(L. S. : 58.9, V. S. 61%)
  - c. Most of casual dresses were turned out to bear noted trade mark.(L. S. : 87%, V. S. : 75%)
  - d. Wearing an autonomous dress has a tendency to constraint the action of students. (L. S. : 54%, V. S. : 53%)
  - e. Autonomous dress used to show a simple and active trend.(L. S. : 83, V. S. : 87%)
  - f. The purification of students have a trend to fell downn for the complification of dress after wearing and autonomous dress.(L. S. : 65%, V. S. : 62%)
  - g. Autonomous dress have a proper tendency by means of representing individual beauty.(L. S. : 64, V. S. : 70%)
  - h. It is needless to constraint the color of autonomous dress.(L. S. : 67%, V. S. : 59%)
  - i. 74% students of liberal high school and 62% students of vocatiuonal high school wants their casual dress to be uniform.
- 2) Psychological Conflict by the Autonomy of School Uniform.
- a. The conflict by their parents' interference in wearing casual dress is not comparetively serious.(L. S. : 46, V. S. : 47%)
  - b. The conflict by their teacher's interference in wearing casual dress remains its original condition.(L.S. : 59%, V. S. : 66%)
  - c. Most of students have much interest in a casual dress.(L. S. : 84%, V. S. : 86%)
  - d. The sense of inferiority caused by their own casual dress in not serious. (Percentage of inferiority by ; L. S. : 37%, V. S. : 36%)
  - e. The competitive sense about their casual dress is serious among their classmates. (L. S. : 71%, V. S. : 67%)
  - f. In chosing their casual dress, they have little intention of depending on their parents.(L. S. : 46%, V. S. : 47%)
  - g. In meeting their friends, they have little intention of having the sense of inferiority caused by their casual dress.(L. S. : 46%, V. S. : 44%)
  - h. The changes of emotion are influenced by the change of casual dress.(L. S. : 53%, V. S. : 58%)

- i. Collegians have tendency to take casual dres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ctivity.  
(L. S. : 85%, V. S. : 86%)
  - j. The price race in choosing casual dress are made among friends (L. S.: 55%, V. S.: 59%)
- 3) The Influence of Autonomy of School Uniform on Self-Conception.
- a. Students have a tendency to express self by wearing casual dress.(L. S. : 63%, V. S. : 64%)
  - b. The good impression of others on the casual dress is much the same.(L. S. : 47%, V. S. : 50%)
  - c. Students have a tendency to wear a casual dress run after the fashion.(L. S. : 56%, V. S. : 54%)
  - d. Most of students want the casual dress that he like.(L. S. : 91%, V. S. : 94%)
  - e. The good impression from the other sex by the wearing casual dress is negative.  
(the response of concern ; L. S. : 18%, V. S. : 16%)
  - f. The attitude of friends by the wearing casual dress is very negative.(the response of concern ; L. S. : 26%, V. S. : 36%)
  - g. Most of students are not interested in casual dress during the life of school.(L. S. : 26%, V. S. : 36%)
  - h. Most of students have a tendency to wear casual dress according to the shape of body, like features and body structure.(L. S. : 79%, V. S. : 84%)
  - i. There is a clear individuality in choosing casual dress regardless of courtesy.(L. S. : 47%, V. S. : 46%)
  - j. The estimation of parents to the wearing casual dress is almost same with pros and cons. (L. S.: 49%, V. S.: 55%)

As we the results, the Co-ed students in Cheju-do accept the autonomy of school uniform affirmatively and act with self-support awareness rather than other's estimation to the wearing casual dress. And since high school girls have great concern about the wearing casual dress, it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ion desirably.